SEP 21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1 1981년8월2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 Tuesday, August 2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또 지렁이차 사고

할머니등 교포 6명 중경상

술취한 승용차와 충돌

23일 새벽 1시30분경 하이웨이8 뉴·햄버그 부근에서 토론토 교민들이 탄 지렁이트럭이 승용차와 충돌, 운전사 이병현씨(50)외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5일 현재 런던 웨스턴온타리오대학병원에 입원중인 트럭운전사 이씨는 안면타박상과 갈빗대 여러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농장으로 지렁이를 찾아 런던부근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던 이씨의 밴트럭은 이날 마주오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받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이씨 일행은 사고직전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다가 오는 것을 발견, 오른쪽으로 피해 서서히 달렸다.

밴트럭은 충돌후 운전사 쪽 앞바퀴가 빠지면서 반대편 벌판으로 두번 굴렀다 같은 차에 탔다가 타박상을 입고 스트라포드병원에 입원한 이씨의 부인은 「사고후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안보였다 한참후 차에서 떨어져 벌판에서 신음하는 남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신미순 할머니와 이명순 박교회 주현옥 여인이다 이들은 모두 스트라포드병원에 입원했다

밴트럭에는 모두 12명의 토론토교민들이 있었으며 6명의 부상자 외에는 무사했다

승용차운전사 로버트·깁수씨는 사고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으며 역시 부상을 입었다

모든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나 할머니와 중년 여인들의 상처는 치유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년전에도 지렁이잡이를 나갔다 오던 밴트럭이 굴러 여러 교민들이 부상했었다

명예교민 안토니오·코레아씨

시집에 이어 음반도 출판

한인회관에 증정하려다 실망

◇자기 음반과 시집을 보여주는 코레아씨. 그는 "다시 한인회를 방문, 이를 증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월하순 명예교민 안토니오·코레아(Corea)씨는 토론토한인회관 주위를 몇바퀴 돌다가 궁금히 발길을 돌렸다

회관 문이 잠겨 들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쥔 종이백 속에는 포장지로 곱게 싼 선물이 들어 있었다

이 선물은 한국인의 후예인 코레아씨가 지은 시집(「I Passi」)과 음반(레코드) 1장이었다

자기와 피가 통한 선조나라의 후예들에게 자기의 자랑스러운 작품을 증정하고 싶어 첫 시집과 음반을 받아 쥔 다음날 그는 회관을 찾은 것이다

코레아씨는 그후 여러차례 회관에 전화했으나 끝내 통화하지 못했다

이때 한인회는 회장단 이사회간의 분규가 한창이어서 한인회사무실이 잠시 문을 닫았을 때였다

크래시칼·뮤직(고전음악)을 담은 이 작은 사이즈(SP)음반은 영어 이태리어로 소프라노및 테너의 2중창으로 취입되어 CHIN 또는 CFRB등 방송국에서 방송되었다

이태리 태생 코레아씨는 지난 3월 시집(「I Passi」)을 출판했었다 이 시집은 주로 도덕심을 강조하는 38편의 시를 수록 이태리에서 출판되어 지난 6월30일 토론토에 도착 되었다

현재 작은 아파트먼트·빌딩의 「수퍼」를 하고 있으나 문학 음악등 예술에 대한 정열이 넘쳐 흐르는 코레아씨는 3년전부터 틈틈이 작곡한 곡을 모아 음반을 출반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같은 아파트의 '티보·폴가 교수(토론토대학 실용대학)가 코레아씨의 재질과 열성에 감명 받아 그의 사기를 돋아주고 적극 뒤를 밀어 주었다

이 덕택으로 코레아씨는 1급 성악가와 좋은 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1천장 제작에 5천달러가 들었으나 1장당 3달러에 판매 재정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지만 코레아씨는자기의 첫음반 출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음악과 문학에 더욱 정진할 예정입니다」라고 코레아씨는 지연수 힘주어 말했다.

시집의 판매가격은 6달러이다.

코레아씨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거쳐 이태리로 흘러 들어가서 남부「알비」라는 마을에 정착한 조선인의 후손이다. 「코레아」라는 성을 가진 그의 친척 몇가정이 북미에서 살고 있다

압류재산 $34만반려

중공, 캐나다에

(북경=CP)중국은 49년 중국공산당 혁명이래중국에 압류돼 있던 캐나다인 재산을 위해 34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매캐큰 외무장관은 황화 중공 외무장관과 합의, 계약서 싸인을 함으로써 이조약이 이루어 졌다.

매캐큰 장관은 중국방문 4일째인 20일 이 관리들과 접촉, 이같은 제약서를 얻어 냈다.

중국 관리들은 또 캐나다산 밀수입을 의뢰해 왔다.

이같은 캐나다인 재산반환은 지금까지 중공당국과 개별적으로 접촉, 협상해왔으나 이번 양국 외상의 협약으로 일괄 타결된 것이다.

이번 조약으로 중국에진출하려는 캐나다 상인에게 더 깊은 신뢰도를 줄것이라고 매케큰장관은 말했다.

매케큰 장관은 재산을압류당했던 캐나다인의 명단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약 백만달러를 중공에 요구했었다고 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49년전 중국주재 캐나다대사의 재산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재산 반환에서 발표치 않기로한 교회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복절기념식

몬트리얼교포들

(몬트리얼 정재성지국장) 몬트리얼 한인회(회장 박종구)는 지난15일 마리아나폴리스대학 강당에서 8·15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우편파업이 끝났으나 정상회복되지 못한 악조건에서도 100여명이 참석 뜻깊은 광복절을 보냈다

저녁7시 백건수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박한인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창훈 총영사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하에 있은 시기가 우리의 5000 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길고 어둡고 어려웠던 때로 생각이 된다 이제 조국이 해방된지 36년이 됐건만 이북땅은 아직도 일제하보다 더욱 심한 고통은 36년 을 지내 마음이 아픔을 느낀다 바라기는 하루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어야 하겠다」는축사를 했다

기념식후 간단한 리셉션에 이어 댄싱파티를 가졌다

◇캐나다의 웨인·그레츠키가 미국의 리드·리슨로부터 팍을 뽑아내고 있다.

미국과의 하키연습경기

캐나다 5:2승

9월1일부터 13일간 몬트리얼등 4개도시에서 열린 「캐나다컵」쟁탈 세계하키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캐나다팀은 첫 연습경기에서 미국을 5:2로 물리쳐 캐나다팀의 진가를 보여줬다

21일 퀘벡시에서 열린 1차연습경기에서 캐나다는 2피어리드까지 팀웍 부족으로 제 실력을 못보였다 미국팀은 오랜 연습으로 약체란 인상을 감추고 선전했다

1피어리드에서 버팔로의 대니·게어가 첫번째 골을 성공시켜 캐나다가 1:0으로 리드했다 2피어리드까지 1:0으로 리드당한 미국은 3피어리드 초반 류·매우래한의 슛으로 1:1타이를 만들었다

동점을 이룬 후 캐나다는 실력을 발휘 크레츠키가 슛을 성공시켜 다시 2:1로 리드 3피어리드 7분43초만에 페레트가 결승골을 넣었다

이후 미국은 마크·존슨의 골로 3:2로 쫓아왔으나 캐나다의 스티브·페인와톤·더가이가 2골을 추가 5:2로 점수차를 늘렸다

이날 경기에는 약 4천명의 관중밖에 안모여 퀘백시민들의 캐나다팀 선발에 대한 항의를 나타냈다 퀘백시민들은 퀘벡·노드릭 선수들이 한명도 캐나다팀 1차후보 35명중에 안낀 것은 불만해 왔다 또 퀘백주민들은 이번 대회에 퀘백주팀을 선발 독립팀을 내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캐나다컵」쟁탈 세계하키대회는 세계의 최강 6개국이 모여 리그전과 토너먼트로 경기를 벌인다

캐나다팀은 25일 미국과 몬트리얼에서 2차 연습경기를 가진 후 27일 29일에 스웨덴 소련팀과 각각 연습게임을 가질 예정이다

25일 미국과의 경기후 최종선수를 선발할 캐나다팀은 NHL의 최우수선수들로 구성 세계최강이다

그러나 주로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온 공산권의 소련 76년도 이 대회 준우승팀 체코의 실력은 캐나다 우승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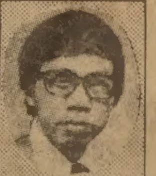
이밖에 스웨덴팀도 토론토 메이플·리프팀의 보위·샤밍, 뱅쿠버팀의 토마스·그래딘등 NHL의 우수선수들로 구성 강팀을 만들었다

미국팀은 많은 NHL 선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NHL B급선수들로 구성돼어도 팀웍은 만만치 않다 뉴욕·레이젼스의 차고 시카고의 토니등은 노장으로 캐나다 출신이며 이 대회에 미국팀으로 출전키 위해 미국시민권을 얻었다

핀란드도 여러명 NHL선수들이 주축으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海記飯店
HOI KEE REST.
●CLAM ●SNAIL
●LOBSTER ●CRAB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NOT M.S.B.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SS

캐나다및 퀘벡주 경제전망 (3)

「온」주 전망은 어두워 돈 있으면 예금해둘것

(퀘벡대학) 정 희 수 박 사

지난주 살펴본 금년도전국 경제전망에 이어 금년도 퀘벡주의 경제전망을검토해 본다.

재미있는것은 캐나다 동부와 서부의 주들은 성장이 활발한데 비해 중부의 주, 특히 온타리오의 전망은 별로 낙관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부주들의 GNP 성장률은 1·7~3·5%, 서부주들의 성장률은 1·2~3·1%로 예측되지만 온타리오주는 0·4%를 넘지못할것 같고 퀘벡주는 0·9%정도에 머물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율을 보면 동부주들은 밝은 경제전망에도 불구, 실업률이 높을 것이다. 뉴펀드랜드주의 경우 13·2%정도가 예상된다.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는 각각 10·2%및 7·0%가 되겠고 알버타주는 가장낮은 4·0%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동부주들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퀘벡주의 문제는 제조산업및 광업분야에 있다. 광업생산량은 금년에 4·4% 감소되고 제조생산량은 0·6%가 감소될 실정으로 북미철광업계의 불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퀘벡주 경제에서 가장 낙관적인 분야는 증가율이 4·0~5·1%인 농업, 공익산업이라 볼수있다.

온타리오주는 특히 제조산업에 약점을 보이는데금년에 이분야의 생산량이 1·2% 감소될 것이다. 온타리오는 내구재상품 생산에 가장 집중되어 있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먼저 타격을 입게된다.

알버타주의 장점은 제조·건축·공익사업·통신·교통·금융·보험·부동산업등에 있으며 건축분야는 금년에 6·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론

퀘벡주 경제의 장기, 단기전망, 그리고 캐나다경제의 단기전망을 다음과같이 요약할수 있다.

(1)장기적으로 볼때 퀘벡주는 자연자원, 인간자원, 기술수준, 금융제도, 사회안전, 문화수준, 기업가의 질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약점때문에온타리오주 경제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퀘벡주경제 약점의 요소는 북미경제성장의 중심지이동, 나라의 크기, 외자의 통제, 중소기업체의 불항, 제조산업구조의 빈약성, 지역경제의 균형불충분등을 포함한다.

(2)그러나 10년전부터 퀘벡주의 경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온타리오주를 어느정도 따라 왔으며, 장기전망은 아주 밝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성장가속화, 제1차산업의 발전, 중소기업체에 대한 합리적정책, 제조산업체의 성장, 적극적인 제3차산업의 개발, 몬트리얼지역의 국제적 역할등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3)금년도 캐나다 전국경제는 작년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원인은 국내및 국제적인 형편, 구속적인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는 계속 가속화될 것이며 이자율은 고수준에 머물고 실업률에도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소득측면으로 볼때 기업체소득은 개인소비자 소득증가보다 빈약하며, 이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때문이다.

(5)소비분포를 볼때 내구재상품의 소비는 개인소비자 소득증가보다 좀 더 약할것 같고, 비내구재상품소비는 소비자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6)금년도주별경제전망에서는 퀘벡주, 특히 온타리오주의 전망이 가장 어둡다. 그 원인은 주로 제조산업 때문이다.

(7)퀘벡주의 경우 주민생활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가는 계속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태는 물론소매업에 타격을 주겠지만특히 내구재상품 소매업이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인플레의 가속화, 이자율의 상승, 증가하는 실업률, 기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

먼저 기업가 측면에서볼때는 2개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첫째, 경제 곤란으로 수요가 감소되어 상품생산및 매매가 감소되는반면 경쟁은 강화될 것이며, 둘째, 이자율의 상승으로금융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재고품의 축적을 최소화 해야한다.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두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야한다. 첫째 소득증가는 미약하나 물가는 오른다는 점, 둘째는 인플레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저금을 하고 또 이를 어떻게 효과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품선택에 머리를 써야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물가는 변동이 심하므로 구매시기도 최적기를 택해야 한다.

투자방법에는 은행예금, 유가증권, 주권, 부동산투자, 보석매입등이 있다. 지금같이 인플레가 가속되고이자율이 오른 상황에서는유가증권은 불리하다. 명목상 이자율은 높지만 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높지 못하다.

그러나 정부의 장기유가증권은 예외이다. 만일 유가증권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단기증권에 투자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근래들어 증권경기는 좋지않다. 물론 석유계통의 주식은 이자율이 높은것도 있지만 일반화 하기는 곤란하다. 퀘벡주의 저축증권은 소득세 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유리하지만 최소한 2년간은 매매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유리한 투자방법의 하나지만 가장중요한 것은 그 위치이다. 그리고 담보이자율이 높아서 전문적 지식없이 성공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보석물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산의 유동성을 약화시키기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볼때 은행예금, 보험회사 저금증권등 예금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끝〉

"한국안보 못도와"

일본, 소노다외상 망언

(서울21일=연합)소노다 일본외상은 한일 외상회담 직전인 19일"일본은 만일 한국이 안보적 이유로 경제협력을 요청해오면 응하지 않겠다"고 말해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각 정당및 언론기간은 소노다외상의 이같은 안보를 위한 경제협력 거부 발언에 대해 일제히 공격, 몰상식한 일이라고꼬집었다.

이 발언에 덧붙여 '소노다외상은 한국은 일본의방위력에 의존, 경제협력을요구해 왔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은 "한반도가 분단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이같은 소노다 외상의 발언은 오랜 냉전끝에 활기를 되찾은 한일관계에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일외상회담차 동경에 들른 노신영 외무장관은 20일 스즈끼 수상을 만나 앞으로 있을 전.스즈끼 한·일정상회담등에 관한 언질을 받았다.

스즈끼 수상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는 무슨 도움이든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의 시기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1위 김진기

한맘골프대회

토론토천주교회의 한맘골프클럽(회장 홍진표) 주최 제6회 한맘골프대회에서 김진기씨가 81점으로그로스 챔피언이 되었다

봄에 열리는 전교민을 위한 한맘대회와 달리 이대회에는 한맘회원 47명만 참가한 가운데 파뷰골프장에서 열렸다

씨니어 7명 여성골퍼도 6명이 참가했다

23일 천주교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맘골프 클럽은 한국일보사 김홍량, 한용식씨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그로스
1등 김 진 기 81
2등 강 윤 모 83(버디 2)
3등 김 현 모 83

◇넷 트
1등 유좌석 104 36 68
2등 이종후 97 28 69
3등 송대헌 105 36 69

◇시니어
1등 김종욱 86
2등 박광철 98
3등 이축긴 99

◇레이디
1등 조숙자 111
2등 홍미자 113
3등 김레지나 128
(전년도 두 챔피언 제외)

◇니어리스트 : 박광철 6'
롱게스트 : 김용대 250yd
어네스트 : 한용식 120
부 비 : 박정환 129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㊺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흥 옮김

소금을 모르던 시대부터 이 사람들은 사슴피에 섞여있는 높은 염분을 마셔서 대처한것 같았다. 그리고 사슴의 배를 갈라서 내장에 붙어있는 지방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아직도 허기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슴이 살이쪘을경우 갈비에 붙어있는 살을 베어 먹는다. 혓바닥과, 때로는 콩팥을 떼어낸다음 사슴의 시체를 버려두고불을 피울수 있을때까지 들고 다닌다.

위에 설명한것은 말할여지없이 불을피울수 있을때는 요리를 해서먹고,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할 수 없을때만 날고기를 먹는다. 밖에서 불을 피울때는 요리라는것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속에 고기를 쑤셔넣고 겉이 시커멓게 탈때까지 두었다가꺼내서 탄 부분을 벗겨내고 1인치정도 잘 익은데만 먹고 다시 불속에 집어넣어서 뼈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한다. 뼈는 쪼개어 골수를 빼어먹는다. 캠프에서 땔감이 있을때는 주로 끓여먹는데 이 사람들은 국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곱돌로 만든 사각형이진 솥을 원래 사용했다. 고깃덩이와 물로 채우고, 불에 달군 조약돌을 넣어 끓인다. 조약돌을 불에달구어 국을 끓이는 작업은 쉬운 노릇이 아니다. 지금은 해안에 살고있는 에스키모 한테서 쇠로된 냄비를 사서쓰고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쉽게 되었다.

그중에서 제일 맛이 있는것은 사슴새끼의 머리를 끓인 것인데, 사슴의 머리는 어느것이나 끓여놓으면 맛이 있지만 특히 이 새끼머리는 일품이다. 어떤때는 끓이기전에 가죽을 벗기지만 그대로 하는때가더 많다. 머리에 붙은살은 정말로 맛이있고, 특히 눈 뒤에붙은 기름덩이는 고소하기가 이루 말 할수 없다.

똑같이 여름철에 고기를 창으로 낚는데, 끓인 생선머리는 서로들 먹으려고한다. 사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다 먹을수 있다. 독자들이 생각할수 있는스테이크나 로스트는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뒷다리에붙어있는 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특별한 영양가가적어서 인지, 대개는 개들에게 주어진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사슴은 통째로다 먹어야 잘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장, 콩팥, 내장, 간, 기타 다른 모든기관을 중하게 여기며 자주먹는다.

세번째로 사슴고기를 닙구(Nipku)라고 고기를 말려서 먹는 방법이다. 이것은 단조로운 식생활을 바꾸기도 할겸 또한 사슴을 잡을수 없을때 오랫동안쉽게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닙구는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서 캠프주위에 있는버드나무 가지에 걸쳐서 말린다. 종잇장 위에 설탕가루를 슬쩍 묻혀놓은것같이 보이며, 맛도없고 칼날처럼 딱딱하지만 사냥을 나갈때는 보통고기의 5배나 가벼기 때문에 훌륭한 저장음식이 된다.

언제인가 오호토가 마고트 파리가 엉겨붙은 닙구를 한자루 주었을때 화가나긴 했어도 나는 이것을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처럼 좋아했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의 음식은 어느것이나 다 기름기가 많은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해안선에 살고있는 에스키모들은 지방분을 물개나 고래에서 섭취 하는데 이들 동물은 추운 북구바다에서 몸을 보호 하느라고 기름옷을 입고있다.

해안선에사는 사람들은 운이좋게 남아서 이글루를 덥히고 불을피울수 있지만 내륙에사는 사람들은 사슴에서 나오는 기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슴을 물개로 대치시킬수 없는 사정이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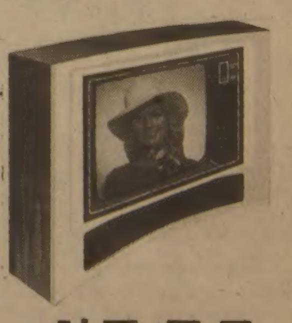
주간女性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어린애를 감시하고 돌볼 때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成長率 年평균 7.6%로

제5次 경제社會개발 5年계획 確定발표

物價 年10%線 안정優先

1人當GNP2,170弗 86년 輸出5百30億弗

21일 정부는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 각부처장관, 각계 民間인사 44명이 참여하는 경제계획심의회가 최종 확정한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년부터 86년까지의 계획기간동안 물가안정에 정책의 最優先을 두어 연평균 물가상승률(도매)을 10·1%, 목표연도인 86년에는 9%로 收束하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7·6%로 책정, 2백30만명의 신규노동력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失業率을 4%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은 각 20%(실질 11·4%), 17%(〃8·4%)로 잡아 86년수출규모는 5백30억달러, 수입은 5백55억달러를 달성, 경상수지적자를 금년의 54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연평균7·6%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해 계획기간중 총GNP의 32·5%를 투자하고 이를위해 작년21·2%에 그쳤던 국내저축률을 29·6%로 높이며 국민조세 부담률도 금년의 18·4%에서 점차늘려 86년에는 22%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租稅부담률 올18·4%서 86년 22%로

福祉연금실시·主穀자급·2重穀價 폐지

◇申秉鉉부총리

그는 5차계획을시발로 정부는 교육 주택 인력 기술개발등 사회개발부문에는 개입을 강화하는대신 民間경제활동영역에는 가능한 市場메커니즘을 존중, 정부는 제도적인 유인장치마련에만 주력할 것이며 보호에 타성화된 우리경제의 능률향상을 자극하기위해 과감한 對外開放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5차계획기간중 총고정투자비의 5%를 교육투자에 할당했으며 국민福祉年金制, 二重穀價制철폐, 主穀自給등도 아울러 계획기간내에 실현시키는한편 전국을 28개지역 생활권으로 구분, 大田 大邱 光州등순으로 據點도시를 개발하고 서울~大田간을 1시간대에잇는 超高速電鐵건설(86년착공)등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안정기반을 뒷받침하기위해 통화증가율은 18%선에서 안정화하고 산업지원정책의 통합, 조정과 효율화를위해「산업정책심의회」를설치,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金利보장을 비롯한 금융자율화, 土地·주택제도 개선, 지방행정기능의 획기적提高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차계획은 산업별로 농림어업성장률은 연평균2·6%, 제조업은 11%, 사회간접자본부문은 7·3%로 구성되어있고 전략비축으로 86년까지 原油在庫는 60일분(경상비축30일분제외), 쌀在庫는 70일분에서 1배일분으로 늘리도록 되어있다.

◇5차계획의모습

	단위	1980	86	88	91	82~86	87~91
GNP 80년 불변	兆원	35·0	53·7	61·5	75·3	7·6	7·0
〃	億弗	574	900	1,008	1,234	〃	〃
인구	백만인	38·1	41·8	43·1	44·9	1·6	1·4
1人 80년 불변	천원	919	1,283	1,427	1,678	5·9	5·5
〃	弗	1,506	2,170	2,340	2,751	〃	
디플레이터 상승률	%	27·7	9·5	9·0	9·0	10·8	9·0
도매물가 상승률	〃		9	—	—	10·1	〃
상품수출(경상)	億弗	172	530	745	1,250	11·41	10·01
상품수입(〃)	〃	216	555	755	1,200	8·41	18·01
경상수지(〃)	〃	—53	—36	—17	50	—	—

1、실질증가율

◇5차계획의 制度개선 과제

<財 政>
—조세부담률 提高(86년22%)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국민福祉年金실시
—양곡기금및 비료계정운용개선
 연차별 시행계획작성
—예산제도 개편
<金 融>
—正의 실질金利보장
—低利정책금융 축소
—금융기관 民營化·自律化촉진
—수출금융제도 合理化
<경쟁촉진>
—공정거래제 早期정착
—경쟁제한法令·慣行정비
—수입自由化확대
 86년까지 先進國수준
—關稅구조합리화
—외국인투자확대
<산업정책>
—산업지원정책의 통합조정 기능강화
—農外소득증대와農政전환
—직업안정기능강화
<정부운용의 효율화>
—행정조직의 능률적개편
—지방財政및 기능提高
<기 타>
—토지·주택제도개선
—의료전달등 보건의료제도개선

北傀미그機2臺 白翎島 침범

지난 12일낮 우리空軍機 출동에逃走

유엔軍司발표

유엔군사령부는 21일 성명을 발표, 지난12일 정오께 북괴의 미그21전투기 2대가 북방한계선을 침범, 백령도 상공을 동으로부터 서쪽으로 침투비행한다음 한국공군전투기가 요격출동하자 북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인 제임즈·G·스톰즈 3세 미해군소장은 이번 영공침범행위가 휴전협정에 대한 중대한위반행위라고지적, 북괴측에 항의했으며 『이같은 도발적 행위는 쌍방의긴장을 고조시켜 중대한 사태로까지 발전할수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고 유엔군사령부가 전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또 스톰즈제독이 북괴에대해 다시는 이같은 위반행위가 없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으나 북괴는 이요구에 대한 회답을 아직하지않고있다고 밝히고, 북괴의 휴전협정위반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예의주시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설 對共태세시험

군당국은 미그기의 백령도 상공침투는 최근들어 무장간첩침투가 국군의 철통경계로 봉쇄되자 북괴가 동서해에서의 해상·공중도발을 늘려 우리의 대공태세를 시험하고 서해5도의 영유권에 관한 억지주장을 재개, 이지역에서의 한미 양국군의 경계태세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에서 자행한것으로 분석했다.

언제나 북괴기 남침비행의 통로가되고있는 백령도는 유엔군이 관할하는 서해5도(大靑·小靑·延坪·隅島·白翎)중 가장큰섬으로 북괴의 海州—甕津 해로를 가장 가까이서 감시하는 전략적요충인데 북괴는 지난73년이래 섬이 자기네의 영해라고 생트집을 부려오고있다. 북괴는 휴전이후 지금까지 이섬주변 해역에서 30여차례의 해상·공중도발을 자행했으며 전투기의 월경이나 위협비행등 6차례나 도발을감행했다. 이번 미그21기 2대의 침투는 지난76년1월23일에 2대의북괴기가 똑같은 남침비행을한이래 5년7개월만에 다시 자행된것. 군당국자는 이번사건을 맞아 백령도지역은 물론 모든 전선의 육·해·공군의 경계태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불필요한 유언비어에 동요되는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미그21기

來27일平統常任委

平和統一정책자문회의는 오는27일하오2시 서울 世宗文化會館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21일 상오 공고했다. 이번 1차회의에서는 ▲諮問委員倫理綱領 ▲統一弘報활동방안 ▲諮問委員연수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한국「經協」60億弗線제시

韓日 外相會談폐막

日、相互依存관계로 增大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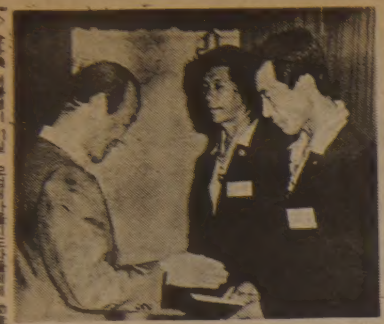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일본外相은 21일 하오 2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2次外相회담을 갖고 韓半島情勢인식에 대한 기초로 對韓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기사2면

사흘간의 韓日外相회담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짓는 이날의 2次단독對坐를통해 盧장관은 『韓半島의 긴장고조와 소련의 군사력증강을 배경으로 北傀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한국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위노력을 계속하고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안정이 일본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대폭적인 경제협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노다외상은 일본은 평화憲法과 행정기구상 安保와 관련된 對韓경제협력은 할수없으나 韓日양국이 상호의존과 連帶性에따라 경제협력을 최대한 증대해나갈방침을 이날아침 閣議에보고, 양해를 얻었다고말했다.

소식통은 이날 제2차단독회담에서 처음으로 盧장관이 내년부터 실시될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투자할 일본측의 對韓경제협력규모를 제시했으며 그額數는 약60억달러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이제까지의 對韓經協을 民生安定으로부터 한단계높은 상호의존관계로 對韓經協의 성격을높이고 그규모도 점차 늘릴 방침이나 年間1억달러규모내외의 경제협력을갑자기 늘리기는 어렵다는 태도를보이고있다. 현재 外相會談의 초점으로 등장한 경제협력문제는 安保차원과 民生安定차원의 중간인 상호의존과연대성으로 교차 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되고있는데 제5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22일낮 오찬을겸한 韓日經協실무자회의에서 崔昌洛 경제기획원차관을통해 日側에 전달될예정이다. 이날 제2차外相회담은 1차때와는달리 단독회의를 먼저하고 이어 30분에 걸친 전체회의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상오9시부터 1시간반동안열린 양측실무자회담에서는 大陸棚의 早期개발문제, 在日동포의 法的地位향상문제, 貿易逆調시정과 관련한 무역확대문제등이 상호 협의되었다. 이날의 2次外相회담으로 20·21일 이틀동안 東京에서 열린 韓日외상회담은 사실상 幕을내리고 9월10일 서울에서 열릴 정기국회와 연말로 예정된 頂上회담에서 經協문제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대표단은 이틀째의 회담일정을 마치고 이날밤6시30분 崔慶祿駐日대사가 베푼 리셉션에 참석했다. 盧외무장관은 22일상오 民團간부들과 조찬후 日政界요인을 차례로 예방하며 하오에는 스노베(須之部量三)日외무성사무차관이 주최하는 비공식만찬에 참석한뒤 23일하오 귀국한다.

盧外務 스즈끼禮訪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盧信永외무장관은 제2차韓日外相회담에 앞서 21일상오 10시50분 수상관저로 스즈끼수상을 예방, 韓日協力문제에 대해 약55분동안요담했다.


◇全斗煥대통령이 21일 모범새마을지도자들에게 勳章을 수여하고있다.

"政策추진 所信있게"

全대통령 高位職人士 친척 잘團束토록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일단 결정된 정책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對應策을 강구하면서 공무원이 소신과 범을 갖고 밀고나가야 하며 부작용때문에 이를 후퇴하면 經濟에 커다란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열린 月間經濟動向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住宅分讓價및 쇠고기값自律化와 교육세신설검토등 일련의 제도개선은 제5공화국의 지도이념이며 政策방향』이라고 강조한뒤 『旣存제도가 부작용이 있어도 이를과감히 개선해 나가야만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수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이를 과감하게 改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새로운 제도는 事前에 국민各界各層의 衆智를모아 현실성있고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게 마련해야하며 이를통해 결정된 새제도는 국민들이 알기쉽게 반복적인 교육과 弘報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한다』고 말하고 『현재 시행중인 公正去來제도는 종래의경제방식에서 民間主導로 개선하려는 꼭필요한 조치인만큼 기업이나소비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빈약한資源, 협소한市場, 폭발적인人口증가등을 감안할때 80年代 국제경쟁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혁신을통한 生産性향상과 品質개선에 힘써 과학기술자와 기능공을 육성하는데 관계部處가 긴밀히 협조해나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교통부로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산하에 교통안전정책審議위원회를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해서 人命과 재산보호에 힘쓰라』고 당부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앞으로 용납될수없으며 다른사람보다도 더 엄하게 다스릴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아울러 『아직도 高位職에있는 친척이나 인척을 빙자해서 詐欺行爲등을 일삼는 정신빠진 사람들이 있는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高位職이나 사회지도층인 사람들은 주변 친척들을 잘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새마을운동에 공이 큰 李寶榮씨(50·釜山市 朱月洞)와 吳錫一씨(49·釜山市 金山面 龍山里)등 2명에게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여하고 이들이 사는 마을의 숙원사업을 위해 특별지원을 했다.

民韓、對政府질문서

敎育稅·海外硏修등추궁

民韓黨의 金炯來의원등 21명은 21일 대통령의 아세안순방을비롯 대학생海外연수, 아파트分讓價, 敎育稅,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등에 관한 對政府 書面질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民韓黨의원들은 질문서에서 『정부는 대통령의 아세안순방으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위하여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학생의 海外연수에대해 질문서는 4천여명의 海外연수생이 40일동안 쓴 비용은 1백60억원규모로 국민학교 교실 1천1백68개를 지을수있는 거액이라고 주장, 과연 海外연수의 利害得失은 무엇이며 이를 겨울 방학때도 계속할것인지, 각다 인솔자와 연수생들의 위화감은 무엇으로 메울것인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질문서는 끝으로 『정부는 地方自治制실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실시時期를 밝히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鳳凰大旗야구 오늘부터 8強戰

22일 12시반		22일 3시		23일 12시반		23일 3시	
① 光州商	③ 釜山商	① 慶北高	③ 淸州商	① 善隣商	③ 大邱高	① 北一高	③ 全州高

地平線

1972년 봄은 일본땅에 「제2의 원자탄」이 떨어진 날이었다. 文武天皇의 무덤으로 전해져온 고분을 열고보니 고구려‖백제양식의 벽화 고분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天皇이 고구려 사람이었다고 할수도 없게된 일본사람들은 무덤의 주인공을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일본 天皇씨름이 그 옛날 백제·신라까지 지배했다고 교과서에 써놓고있는판이라 원자탄만큼이나 큰 충격을 줬다. ▼백제에 대해 인색했던 金富軾의 三國史記도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다는 사실을보여주는 한토막의 기록을남기고있다. 16대阿莘王이 일본에 큰구슬을 바치라고 요구해서 17대腆支王 5년에 夜明珠를 보내왔다는내용이다. 서기409년의일이다. 백제가 일본을지배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 남아있는 유물이나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알수있다. ▼敏達天皇 4년 일본에서는 백제가 3백척의 배로 처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와 법석이 났다는 기록이 日本書紀에 보이고 있다. 서기575년에 해당하는 해의 기록이다. 이에앞서 고구려가 처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온 일도 있었다. 고대 일본이 고구려, 특히 백제의 지배권밑에 있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증거는 七支刀라는 유물로 움직일수없는 사실이 됐다. ▼七支刀에 새겨져있는 글씨는 백제의 大王이 일본에 있는 侯王에게 하사했다고 있다. 재일동포학자 李進熙씨는 그것이 백제東城王때의 일이라고 해석하고있다. 이밖에도 일본에는 아마도 蓋鹵王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칼이 발견됐다. 불행히도 글씨가 희미해져 蓋鹵王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백제가 唐나라 군대에 무너졌을때 일본 朝廷에는 達率 이상의 백제귀족 70여명이 왔다고 기록돼있다. 佐平 余自信등 벼슬을 받은 사람만 7백명이나 됐다. 吏部에 해당하는 法官大輔, 문교장관격 국립대학총장격인 學職頭등이 이름난 백제귀족이었다. 한마디로말해서 이때 일본왕권은 바로 백제왕실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본역사가 그것을 감추어왔을 뿐이다. ▼일본사람들은 4세기후반 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벌하고 백제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있다. 園田외상이 『神功皇后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지배한일이 있다』고 말한것도 같은 말이다. 하지만 神功皇后가 터무니없는 도깨비였다는 것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이 시인하고있다. 과거를 따질것없다는 말은 그렇다치고, 하필 낮도깨비같은 神功皇后를 들먹인데엔 웃을수밖에 없을것같다.

社会漫評

공짜安保에…
보이는건없고…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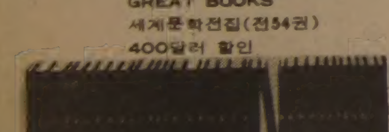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치과개원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기장소에서 치과개원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원일시 : 9월1일부터(오전8 : 30～오후5 : 30)
장　　소 : 586 EGLINGTON AVE. E.
(Bayview×Eglington)
전　　화 : 483－9515(B)

치과의사 최 해 경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 : 30－6 : 00
THURS. FRI. 9 : 30－9 : 00
● 신품 : $99이상 ● 중고품 : $1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 363－6077

美·리비아機 空中戰…相反된발표

서로 먼저 攻擊받았다

美、2臺擊墜·리비아、美機1대명중…證據제시

【뉴욕20日AP=聯】지중해상공의 美·리비아 전투기격돌사건과 관련한 양국정부의공식발표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리비아는 2대의 自國전투기들이 리비아해안외해에서 작전중인 8대의 美해군소속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美국방성측은 美해군전투기 2대가 리비아전투기 2대중 한대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또 리비아機2대가 격추됐다고 주장한데대해 리비아측은 이를 아직 명백하게 확인하지 않고 리비아는 미국機한대가 격추됐다고 주장했으나 美국방성은 그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공중전이 벌어진장소에 대해서도 양국정부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이 사건이 리비아해안으로부터 60해리(1백11㎞)떨어진 시드라灣 해역이라고 발표했으나 파리주재 리비아공관원인 사이드·하피아나씨는 기자들에게 그 장소가 해안으로부터 24해리(44·4㎞)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했다。

美국방성은 1명의 리비아조종사가 낙하산으로 해상에 내리는것이 목격됐다고 밝힌데 대해 리비아통신은 조종사들이 모두생존했다면서 신원을 밝히지않은채 조종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통신은 그들의 제트기들이 실종됐는지의 여부는 언급하지않은채 다만 미군기로 공격당했다고만 보도했다。

美 지중해艦隊 軍事훈련

레이건"攻擊당하면 즉각反擊"

【코스다메사(캘리포니아)21日UPI=聯】레이건미국 대통령은 20일 자신은리비아전투기들이미국전투기들을공격해올가능성과 함께 리비아전투기들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전투기들도 이에 응사할수밖에 없게될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썽의 소지가 많은 리비아근해에서 美지중해함대(제6함대)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의 한 공화당기금모금단체에서 행한 연설을통해 美지중해함대의 군사훈련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油價34·36弗맞서

石油相회의 기준가單一化실패

【제네바20日UPI=聯】사상최초로 유가인하협상을 벌이고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석유상들은 20일예비협상을 포함, 총4일간의 異見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油價單一化에 실패한채 전례없는 움직임으로 본국수뇌들에게 협상에 직접 개입해줄것을 호소했으며 21일 회의를 재소집,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現OPEC의장인 수브로토 인도네시아 석유상은 회의가 끝난후 기자들에게 기준유가를 배럴당 35달러선에 조정하려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히고 회의를 일단 休會, 21일 가단일화를 위한 최종노력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休會의 목적은 본국수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위해서로 접촉해주도록 요청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상들은 배럴당 35달러의 기준유가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배럴당 34달러를 고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36달러선을 고집하는 리비아등 강경파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회의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면서 21일 상오까지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아 협상을 재개할것이라고 밝혔다。

메아리

독일의 귀족출신들은 요즘 마음이 언짢은것같다。그들의 존엄한 姓氏대열에 「평민침입자」들이 올까봐 걱정이다。독일의 귀족제도는 1918년 공화제 채택으로 무너졌다。모든특권이 사라졌지만 귀족의 고유한 姓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성명법이 나와 독일에선 아내의 姓도 택할수있게 했다。귀족가계의 여성을 아내로 맞는 「평민남성」이 당당히 「귀족姓」을 쓸수 있게 된것이다。물론 지금도 공작출신과 결혼한 여성은 공작부인 행세를 한다。새로운법은 남성에게도 귀족출신 姓의 문호를 개방한 셈이다。귀족의 姓氏행렬에 끼어들게 됐으니 귀족출신들이 언짢을수 밖에 없다。

姓의 근원은 원시사회의 토템신앙에서 찾아진다고한다。부족이나 씨족이 어떤 특정동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것으로 생각했다。씨족사회가 발전하면서 姓氏제도가 자리를 굳혔다。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서양에선 왕족과 귀족같은 지배층만이 姓을 갖고 일반 평민은 성도 이름도 없는경우가 더 많았다。독일 귀족출신들의 姓에 대한 애착이 이해갈만하다。

서양사람의 이름은 3개로 구성된다。세번째붙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姓에 해당하는 家名이다。여자가 시집을 가면 이 家名은 없어지고 남편쪽을 따른다。유명한 재클린여사는 사별한 두 남편의 家名이 꼬리를 달아 재클린·케네디·오나시스라고도 쓰여진다。

스페인 사람들의 성명은 우리 눈으로 보기엔 더욱 묘하다。부계와 모계의 姓이 나란히 붙는다。요즘 싱가포르에선 기혼여성들이 처녀때의 姓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주장이 한창이라 한다。대부분의 동양사람들은 아들 선호 경향이 강하다。아들만이 가계를 이어갈수있기때문이다。

싱가포르여성운동가들은 이런 규정이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산아제한에도 영향을 준다고 소리를 높인다。여성의 本姓을 찾자는 의견이 여성운동의 최고이슈로까지 등장했다。

우리 호적제도엔 여자의 姓이 결혼을 해도 그대로 보존된다。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중국등 몇몇 나라에만 있을뿐이다。한국 여성운동가들의 짐은 저절로 하나 덜어진 셈이다。

여성의 本姓

安定·能率·衡平의 基調마련

政府、제5차5개년 經濟개발計劃…그向方과 背景

5차계획의 기조가 표면상으로나마 처음으로 안정을 표방했다。지난 1、2차계획이 자립경제확립과정이었다면 3、4차계획은 성장우선의 개발전략。정부는 5차계획에서 과거의 「成長」캐치플레이즈를 빼는 대신 10%이내의 물가안정 최우선、과감한 對外개방을 선언하는 경제의 「능률」、교육을 비롯、사회개발투자대를 의도한 「均衡」을 계획기조로 표방했다。또 계획기간중 82~83년을 구조적인플레와 경제의 비능률제거등 기반정비단계、84년부터를 본격적인 제2의 도약단계로 설정하고 계획의 重點과제를 성장지속을위한 경제안정기반정착과 능률향상、국제수지의 건실한 관리와경제安全확보、비교우위산업구조로의 전환、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사회개발확대에 두었다。【編輯者註】

成長至上주의·누적된 부작용등 반성

物價안정강조…中學의무교육 25%까지

과거 성장至上主義가 낳은 우리경제의인플레구조만성화、소득분배의 惡化등 누적된부작용을 반성하는視角에서 당초 출발했던 5차계획도 결국은 종래의 성장과수출主導경제 개발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인상이다。

물가안정의 決意를 강조하다보니 계획기간중 2백29만명이나 늘어나는 就業인구의 일자리마련이란 고용문제가 딜레머로 등장하고 衡平이나 福祉에대한 국민의 高潮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니 국민 稅부담능력등 자원의 한계는 물론 경제개발등 어다 성장부분에 주름살이 너무 크다。

총량지표에 나타난 연평균 경제성장률 7·6%、물가(도매)10·1%등은 정부의 어느정도 성장템포減速과 안정기반회복의 의도를 나타낸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성장드라이브 基調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5차계획의 기본목표가 안정、능률、균형의 기조아래 특히 10%수준의 물가안정에 최우선의 역점을두고 고용기회창출을위한 7~8%의 경제성장、국민福祉증진을 위한 사회개발확대에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즉 종래계획에 비해서는 안정、福祉요소가 그래도 상당히 절충되어있는 셈이다。

그러나 5차계획부터 경제개발계획자체의 성격이 크게 변질되고있다。

62년이래 이미 실질기준 GNP규모만도 4·5배로 팽창한 우리경제를 초기 개발계획단계처럼 단순한 계획의 틀안에 拘束하는것은 무리다。더우기 정부가 市場메커니즘의 活力化와 경제운용의 민간주도를 표방하고있다。이미 해외의존도마저 크게 높아진 우리경제를 불과 1분기의 단기경제전망조차 어렵게하는 유동적인 對內外경제여건에서 정확히 計量化하고 계획화한다는것은 사실 어렵고 옛날같이 信賴感을 국민들에 주기도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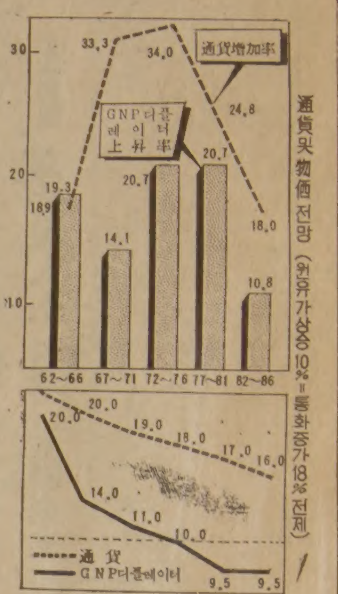
정부도 5차계획은 과거계획같은 靑寫眞이 아니라 誘導계획이며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즉 계획의 성격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달성을 위해 대시하려는것이기보다 80년대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건과 과제를 분명히하고 이에 대처할수있는 방향을 제시하는것이며 총량지표에 나타난 성장률등 수치는 어디까지나 결과일뿐이란 설명이다。

그래서 이번계획은 수립과정에서부터 KDI등 각종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부문별로 학계 언론계는 물론 업계등 利害당사자까지 광범하게 참여시켜 우리경제의 여건과 과제인식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색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포인트였기도했다。

[illegible]

【金曙雄기자】



●安定과 能率

[illegible]

●국제收支의 견실화

[illegible]

●비교優位의 산업구조

[illegible]

●사회개발

[illegible]

●國土의 균형개발·環境보전

[illegible]

◇國際收支전망 (經常·億弗)

	80	81	82	86
經常收支	−53	−54	−49	−36
貿易收支	−44	−42	−40	−25
輸出	172	210	253	530
輸入	216	252	293	555
貿易外收支	−14	−17	−14	−16
移轉收支	5	5	5	5
長期資本收支	19	30	29	30
基礎收支	−35	−24	−20	−6
短期資本收支	19	8	8	3
綜合收支	−19	−16	−12	−3
外換保有額	66	70	75	110

◇산업별適正投資배분 <80년가격·兆원>

	72~79년	82~86년	
	구성비%	금액	%
農·林·漁·鑛業	10·0	6·8	9·4
제조업	23·2	16·2	22·5
	(100·0)		(100·0)
경공업	(37·3)	5·3	(32·9)
중 〃	(43·4)	7·5	(46·2)
기계산업(전자수송기기포함)	(24·2)	(6·0)	(37·2)
화학공업	(19·3)	3·4	※(20·9) (16·3)
철강금속공업	19·2	1·5	9·0
사회간접자본	33·9	24·6	34·1
電力	6·0	4·7	6·5
통신운수	24·5	16·9	23·5
기타서비스	32·8	24·5	34·0
주택	15·8	14·4	20·0
교육	3·0	3·6	5·0
합계	100·0	72·0	100·0

※脫黃시설및 에너지이용합리화부문에대한 투자제외

◇국토·환경·수송지표

項目	單位	80(A)	86(B)	B／A
國土및環境保全				
댐供給率	%	26·1	38·9	—
河川改修率	%	30·6	35·1	—
工業用地	㎢	259	332	1·3
上水道普及率	%	55	70	—
1人1日給水量	ℓ	256	300	1·2
下水道普及率	%	6	25	—
環境汚染測定網	臺	430	943	2·2
糞尿處理施設	kℓ／日	6,104 91개소	11,873 253개소	1·9
輸送및通信				
鐵道總延長	㎞	6,007	6,599	1·1
高速道路延長	〃	1,225	1,428	1·2
國道鋪裝率	%	53·7	72·1	—
港灣荷役能力	百萬%	82	131	1·6
外航船保有	千G/T	5,175	9,397	1·8
地下鐵延長	㎞	22·1	140·4	6·4
百人當電話普及	臺	7·1	19·3	2·7

◇국민生活

主要指數	單位	'80	'86
中學校義務敎育(85~91단계실시)	%	—	25·7
高等敎育就學率	%	15·8	31·2
住宅普及率	%	74·5	78·4
1人當居住面積	坪	2·9	3·2
上水道普及率	%	55·0	70·0
下水道普及率	%	6·0	25·0
地下鐵利用率(서울市)	%	7·5	40·0
100人當電話普及	臺	7·1	19·3
醫師1人當人口	名	1,485	1,275
1人當1日Cal攝取量	Cal	2,668	2,816
醫療保險受惠率(의료보호포함)	%	29·5	65·9
產災保險適用率(경제활동인구대비)	%	26·0	40·6
下位40%所得占有率	%	15·4	17·5

◇5차계획 주요事業 (80년불변가격, 10억원)

事業名	工期	事業量	投資費 總事業費	82~86
<完工>				
원자력발전소(月城#2·5·6號)	76~85	4基 3,299千kw	2,472	877
기존조선소확장	82~86	4,000千G/T →5,500千G/T	536	536
신규조선소	83~85	500千G/T	198	198
자동차공장확장	82~86	300千臺 증설	957	957
LNG수입기지	81~86	年3,000千%	362	347
LPG수입기지	80~82	1,000千%	65	31
湖南線복선화	81~85	裡里~松汀里101·2㎞	130	122
水仁線광궤화	83~86	水原~南仁川53·2㎞	74	74
東西고속도로	81~84	大邱~光州174·9㎞	183	161
서울시지하철2·3·4호선및부산1호선	78~85	서울2호선:48·8㎞ 서울3·4호선:57㎞ 釜山1호선:22·5㎞	2,099	1,546
忠州댐	78~85	댐축조 967千㎥	297	221
陝川댐	82~86	댐축조 4,004千㎥	102	102
洛東江하구언	82~86	土壤堤1,483千㎥	67	67
하수종말처리장(12개도시및수도권)	82~86	3,857千t／日	655	655
서울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79~83	59·5千평	71	57
<繼續>				
원자력발전소(#7·8·9·10·11·12)	79~90	6基5,600千kw	4,653	3,428
<着工>				
원자력발전소(#13·14·15)	85~92	3基2,7500千kw	1,988	55
제2제철공장	85~88	年3,000千%	1,674	613
서울~大田고속전철	86~89	서울~大田 160㎞	1,050	200
전라선및장항선개량	85~89	裡里~麗水 198·3㎞ 天安~長項 143·5㎞ 大田~光州 171·2㎞	222	30
호남고속도로확장	84~89		115	55
부산항3단계	84~87	부두 1,600m등	173	109
금포공항확장	82~87	활주로 1本신설(4,000m×60m)	165	97
김해공항확장	82~87	활주로연장등(500m×45m)	21	18
釜山市지하철2호선	85~89	20·8㎞	224	90
住岩댐	86~91	댐축조1,833千㎥	145	13
광역상수도82	82~91	／2,500千톤／日	406	165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 간판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경함·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 인쇄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學術院·藝術院 女性회원 12명

정부는 최근 學·藝術院회원 64명을 새로임명, 우리나라 學·藝術院회원은 모두 1백42명이 되었다. 새로 임명된 회원중엔 孫素熙(작가) 金慈環(소프라노) 金白峰(한국무용가)씨등 3명의 女流가 들어있어 學·藝術院의 여성회원은 12명으로 늘어났다.

학자·예술가 최고의 영예
전체회원 百42명중 8%
孫素熙·金慈環·金白峰씨 새로임명

◇모윤숙씨 ◇최정희씨 ◇김자경씨 ◇천경자씨 ◇김원복씨 ◇김영의씨 ◇고황경씨 ◇손소희씨 ◇김백봉씨 ◇박화성씨 ◇김삼순씨 ◇임옥인씨

學·藝術院회원이라면 어느나라에서나 학자·예술가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고있으며 프랑스에선 금년에야 처음으로 「아카데미·프랑세즈」의 여성회원을 받아들였을만큼 여성에게는 좁은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學術院에는 高凰京(사회학·서울女大학장) 金三純(응용균학)씨등 2명의 여성회원이 있고 藝術院에는 詩人 毛允淑씨와 소설가인 崔貞熙·朴花城·林玉仁·孫素熙씨, 화가 千鏡子씨, 음악인인 金元福(피아노) 金永義(피아노) 金慈環(소프라노)씨, 무용가 金白峰씨가 회원으로 있다. 전체회원 1백42명중 8%밖에 안되는 숫자이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통사회의 극심한 차별에서 벗어나 교육을 받기시작했던 짧은 歷史를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볼수도 없다.

人文科學 5分科의 元老會員인 高凰京박사(72)는 日本의 同志社大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美國 미시간大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사회학(박사)을 전공했다. 梨大교수, 京畿女高교장을 역임한후 61년 서울女大를 창설, 지금까지 학장직을 맡고있다. 그자신은 未婚이지만 58년이래 대한어머니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어머니헌장」을 만드는등 여성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1년학술원회원이 되었다.

自然科學 2分科 원로회원인 金三純박사(72)는 [illegible] 과를 졸업했다. 해방후 서울大, 서울女大에서 가르치다가 53년때 다시 일본유학길에 올라 66년 九州大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의 중요학회지에 소개된 논문이 15편이 넘을정도로 자기분야에서 꾸준히연구해왔고, 大學을 정년퇴직한 후에는 고향인 全南潭陽에 「潭陽應用미생물연구소」를 차려 育種과 發芽學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76년 학술원회원이 되었고 79년 학술원상을 받았다.

예술원회원 10명중에는 文人이 5명으로 가장 많고 毛允淑·朴花城·崔貞熙씨등 3명이 원로회원이다.

朴花城씨(76)는 66년 예술원회원이 되었으며 지난77년 10년의 침묵을깨고 「休火山」이란 단편집을 내었을만큼 노령에도 붓을 놓지않고 있다. 木浦태생으로 日本女大 영문학부를 수료하고 32년 장편 「白花」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 「사랑」「고개를 넘으면」「洪水前夜」「고향없는 사람들」등의 장편·단편이 있다.

毛允淑씨(72)는 詩人으로, 펜클럽한국 위원장으로, 또 한때는 국회의원으로 활발하게 활약해온 女流. 元山태생으로 梨花女專을 졸업했으며 대표시집 「렌의 哀歌」와 서사시집 「논개」, 수필집 「시몬은 누구인가」등을 갖고있다.

70년 예술원회원이 된 崔貞熙씨(69)는 咸南端川태생으로 숙명여고, 중앙보육학교를 졸업하고 32년 「정당한 스파이」등의 단편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했다. 단편3부작 「人脈·地脈·天脈」과 「녹색의 門」「끝없는 낭만」「彈琴의 書」「탈출이」등을 발표해왔으며 지난 76년에도 단편집 「찬란한 대낮」을 내놓았다.

林玉仁씨(70)는 77년에 3부작인 「越南前後」「日常의 모험」「防風林」과 文藝傳道를 위한 「망울」, 무기부여수와 주고받은편지를 모은 「빛은 창살에도」등 다양한 저서를 갖고있다. 咸北吉州태생으로 日本 奈良女高師를 졸업했으며 39년 「後妻記」로 데뷔했다.

이번에 새로 회원이된 孫素熙씨(64)는 咸北鏡城태생으로 [illegible] 「그날의 햇빛」「南風」「갈가마귀 그소리」「태양의 계곡」등 많은 작품을 갖고있다.

여성예술원회원중 음악인은 3명이며 金元福·金永義씨는 원로회원이다. 54년에 예술원회원이 처음생겼을때 회원이되었었던 金元福씨(74)는 한국최초의 여류피아니스트로 日本의 東京고등음악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와 38년부터 45년간 梨大·서울大에서 후진을 양성해왔다. 73년 20년봉직했던 서울大를 정년퇴직했으며 74년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illegible] 학구적인 자세를 지켜왔다. 信川태생이며 작곡가 洪蘭坡는 그의 姉三寸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 金永義씨(73)는 母校인 梨大에서 40여년간 후진을 길러왔고 현재 梨花재단이사장으로 있다. 仁川이 고향이며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美國 줄리어드음대에 유학하고 돌아와 초창기의 음악교육을 다지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번에 새로회원이된 金慈環씨(64)는 화려한 음악활동을 펴온 당대의 소프라노. 이화여전을 졸업한후 美國줄리어드음대에 유학하고 돌아와 母校교수로 재직중이며 지난68년 「金慈環오페라단」을 창립하여 오페라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켜왔다.

千鏡子씨(57)는 독특한 세계를 지닌화가로, 또 몇권의 베스트셀러 수필집을 가진 수필가로 그림과 글이 막상막하의 인기를 끌고있는 女流. 全南 高興출신으로 東京女子美術專門학교를 졸업했으며 해방전부터 鮮展에 입선, 대한미협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여류무용인으로는 처음 예술원 회원이된 金白峰씨(54)는 평안태생으로 [illegible] 무용연구소에서 무용을 공부했고 현재 경희대교수로 재직중이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바라춤」「무당춤」「광란의 제단」등 많은 작품을 안무해서 스스로 추었고 한국무용의 멋과 아름다움을 지켜온 제1인자로 꼽힌다. 【趙明秀기자】

나의 이력서 ⑳ 윤치영

〈尹致暎·尹致暎〉

美本土 留學
프린스턴大서 國際法과 外交學전공
獨立團體활동하면서 7개大學편력

하와이에서 美本土로가는 필라웨어號는 난생 처음 타본 웅장한배였다. 필라웨어號는 1주일간의 지리한 항해끝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同志會회원들이 환영식을 베풀어주었다. 나는이어 교포민중대회와 강연회에 참석하고 太平洋誌와 國民報지사를 방문했다. 당시 나를 환영나온 사람들중엔 南加州大학생이었던 任永信(前中央大총장)도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주일을 묵은뒤 시카고를 거쳐 뉴욕으로 갔다. 시카고에선 同志會지회장겸 교민단장인 鄭太殷과 太平洋誌와 國民報지사장인 金鉉九등 30여명이 환영을 해주었다.

뉴욕으로 갈때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급행열차 「20세기號」를 탔는데 열차안엔 이발관, 목욕탕, 도서관, 오락실등이 있어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뉴욕외펜역에 도착하니 콜롬비아大유학생인 [illegible] 등 많은 인사들이 성대한 환영을 해주었다. 또 유학생회, 교민회, 歐美委員部에서 별도로 환영식을 해주었다.

뉴욕에선 보름가량 보내며 同志會지회를 조직해놓고는 목적지인 프린스턴대학으로 갔다. 뉴저지州에 있는 프린스턴대학까지는 뉴욕에서 기차로 1시간반가량 걸렸다.

프린스턴대학에 찾아가 李承晩박사가 써준 소개장2통을 딘·웨스트대학원장과 어드맨박사에게 보이니 극진히 환대했다.

李박사의 母校이자 박사학위를 받은 名門 프린스턴대학에서는 李박사가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통했다.

그 덕에 난 학교기숙사 브라운홀에 방을얻어 별 불편없이 대학원에서 3년간 國際法과 外交學공부에 정진할 수 있었다.

프린스턴에선 白樂濬박사(前延大총장)를 잠깐 만났다. 내가 학업을 마치고 예일大로 가는 길이었다.

한번은 33人인 [illegible]씨가 세계一周도중 프린스턴大에 들러 내가 학교 구내를안내했는데 그는 3·1운동당시의 「秘話」를 털어놓았다. 그는 3·1운동의 主役은 자신과 33人外의 宋鎭禹, 玄相允, 崔南善등이었고 33人의배경에는 48人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초 3·1운동의 主體는 기독교인들이었고 자신이 孫秉熙선생을 적극 설득해 운동에 참여케했다는등의 애기를했다.

난 미국에서 남다른 대학편력을 했다. 하와이大까지 하면 미국내 7개대학에서 공부를 한셈이다. 이는 다양한 이론과 학문의 체계를 습득하자는 욕심때문이기도했지만 歐美委員部등 독립단체의 활동때문이기도 했다.

여름방학중 네브래스카州의 헤스팅스大에 유학중이던 조카 旺善이가 病이났다는 전보를받고 달려갔다. 旺善이를 가족처럼 돌봐주던 비힐 판사내외와 내가 병간호를 했으나 보람없이 입원 한달반만에 숨졌다. 나도 병간호중 과로로 병이나 보름가량을 앓았다. 당시 旺善이를 총애하던 총장의 배려로 대학에선 旺善이의 장례를 大學葬으로 치러주었다.

나는 헤스팅스大에서 外交史를 1학기 공부하고 다시 프린스턴에 돌아왔다.

1927년 프린스턴大의 브라운박사가 「국제법의 최고권위자인 하이드박사가 있는 콜롬비아대학으로 가라」고 권해 콜롬비아大대학원에 입학해서 국제법과 외교학을 연구했다. 콜럼비아에는 張德秀, 金度演, 李喆源(前공보처장)등 쟁쟁한 인물들이 다녀갔다.

그 이듬해 李承晩박사한테서 편지가 왔다. 『워싱턴으로 가 歐美委員部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에게있어 李박사의 말은 하늘과같았다.

나는 다시 보따리를 챙겼다. 워싱턴에 가는 길에 그간의 공부를 정리할겸해서 펜실베이니아州의 엘리자베드大에서 6개월간 외교사강의를 들었다. 그곳에선 주로 책만 보았다.

1929년 워싱턴의 조지·워싱턴大에 들록, 국제법과 외교학을 전공하고 3년뒤 콜럼비안 칼리지에서 BA학위를 받았다. 이어 아메리칸大 대학원에서 3년간 국제법, 외교학을 공부한뒤 MA학위를 받았다.

조지·워싱턴大와 아메리칸大대학원재학중엔 카네기平和財團에서 국제법, 외교학, 외교사의 특별강의를 듣기도 했다. 카네기평화재단은 대학은 아니나 세계적인 碩學들이 나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좌를 들으려면 대학교수, 강사자격자나 MA학위이상의 소지자로 특별한 소개가 있어야 했다.

난 관계서적이 총망라된 카네기재단의 도서관안에 책상을 하나 마련해놓고 대학을 다니면서 5년간 특별수업을 한것이다.

미국에서 국제법과 외교학공부를 장장 10년간 했지만 그런대로 그방면에 실력을 쌓을수 있었던것은 카네기 평화재단에서의 집중적 수업 덕분이다.

그 때문인지 함께 공부한 同門들에 비해 그리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을뿐 훗날 建國후 수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맡기도했다.

◇1925년8월15일 하와이를 떠나 美本土유학길에 오를때 필라웨어船上에서 李承晩박사가준 태극기를 들고있는 筆者. 이 태극기는 歐美委員部 파리출장소에 걸렸던것이다.

케시박스選定 텐·톱팝에 「끝없는사랑」2주째首位

미국의 가요 연예주간지 「케시·박스」선정 금주의 텐·톱·팝의 1위는 지난주에이어 다이애너·로스와 라이어넬·리치의 「끝없는 사랑」이 지키고 있다. 2주전 1위에서 2위로 밀려났던 「가장 위대한 미국의 영웅」은 다시 3위로 처진 반면 3위였던 포인트 시스터즈의 「슬로·핸드」가 2위로 부상했다.

한편 컨트리 싱어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의 걸」은 4위, 지난주 4위였던 로니·밀삽의 「아무것도 얻을수 없어요」가 차지했고 3주동안 1위를 고수했던 케니·로저스의 「나는 당신이 필요치않아요」는 6위로 떨어졌다. 【뉴욕=AP】

<케시박스선정 이번주 텐·톱·팝>
(괄호안은 지난주 순위)

①(1)=Endless Love (다이애너·로스 & 라이어넬·리치)
②(3)=Slow Hand (포인터·시스터스)
③(2)=Theme from The Greatest American Hero (조이·스카베리)
④(4)=Jessie's Girl (리크·스프링필드)
⑤(5)=Elvira (더·오크·리지·보이스)
⑥(6)=I don't Need you (케니·로저즈)
⑦(7)=The One That you Love (에어·스플라이)
⑧(10)=Queen of Hearts (주스·뉴튼)
⑨(8)=Boy from NewYork City (맨해턴·트랜스퍼)
⑩(12)=Lady(you Bring me up) (코모도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放送街소식

TV문학관 等身佛 에미賞에 出品키로

KBS는 「TV문학관」의 하나인 「等身佛」(李恩成극본·張亨一연출)을 국제에미상에 출품키위해 20일 뉴욕의 에미상사무국에 영어자막처리가된 작품을발송했다.

「等身佛」(金東里작)은 인간의 끝없는욕망과 사악으로부터 구원받기위해서는 오직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데 있다는것을 자신의몸을 불사르는 화생을통해서 보여주고있다.

한편 KBS는 「단독강화」(林宗國극본, 金弘鍾연출)도 에미상에 출품하려 했으나 自國에서 방송된작품에 한해 출품이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출품하지 못했다.

아역스타 安聖基·全暎璇 19年만에成人되어서對決

◇全暎璇

◇安聖基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이르는동안 아역스타의 대명사였던 安聖基(29)와 全暎璇(28)이 성인이돼 19년만에 연기대결을 벌여 화제가 되고있다. 공연하는 영화는 趙世熙원작소설을 극화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감독 李元世). 철거민촌의 애환을 그린 이영화에서 安聖基와 全暎璇은 죽음으로 끝맺는 비극의 연인사이로 출연하고있다.

安聖基는 5세때인 57년 「황혼열차」로 金芝美와 함께 데뷔했고, 全暎璇도 5세때인 58년 「꿈없는 비극」으로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공연한 영화는 62년에 제작됐던 「모자초」(감독 朴性福). 金東園·趙美鈴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로 분했었다.

그후로는 共演이 없었다는 것. 19년만에 사랑하는 사이로 나란히 카메라 앞에선 두 「成人兒役」은 『어린시절의 연기감각과 호흡을 되찾을수 있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張吉山 (163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一部 彌勒 四章 逆謀 (94)

「무엇을 묻고 있느냐?」

풍열이 눈을 가늘게 뜨고 길산을 건너다 보았고, 길산은 말이 나온김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말하였다.

「제 생부(生父)에 관해 여쭙고 있읍니다」

길산의 출생담을 잘알고있는 풍열은 속으로 헤아려 보는듯 하더니 도안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아마, 효종 연간 갑오(甲午)말께나 을미(乙未)초가 될걸세. 네가 을미생이지?」

「예, 생모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생부가 망해사에 소식이 닿는다구 하셨답니다」

도안은 한참 기억을 더듬는듯 하였다.

「을미년이라… 그러니까 그 해에 추쇄도감이 열리고 노비들을 마구 잡아 들이던 때가 아닌가. 옳지… 그 해에 보현사를 수리하였지. 솜가한 행자들이 많아서 일이 빨리 끝났다네.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나? 가만… 망해사에서 보낸 이라면 셋이 있었지. 혹시 그이의 속명을 아오?」

길산은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하였다.

「여노질 다녔답니다. 신계사람이구 이름은 보(步)자를 쓴다 하였지요. 보돌이라 불렀겠지요」

「허, 그…명근(命根)스님아닌가」

도안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였고, 길산은 말을 잃었다. 도안은 염주 만지기도잊은듯 연신 허허, 소리만 내었다.

「그래 그 무렵에 보경선사에게서 행자 한 사람이 왔지. 신계 사람으로 여노였는데 달아났다더군. 우리는 형제나 마찬가지야. 명근은 안심사(安心寺)의 주승으로 있지」

풍열은 쏘는듯한 시선으로 길산을 관찰하고 있었다.

「안심사의 주승이라면… 나도 예전에 향산에서 동안거를 보내면서 만난적이 있네. 계행이 높은 승려였어. 길산아, 잘 생각하느냐?」

「예…?」

길산은 멍청한 정신을 차리고는 동요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방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illegible]

「생부이든 사부이든 그분은 이미 그러한 인연을 떠난 선승이시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상이 이만큼의 취산(聚散)의 인과를 지어낸 것인 즉,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각처로 팔려 헤매야 하는 정이 끊기는 비리를 없애야 한다. 길산아, 너 혹시 향산으로 찾아가려거나, 혈연임을 앞세워 그분에게 사실을 애기하려거나 하는 철없는 짓을 하려는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길산은 단호하게 말하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이 있어 뵈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애기는 꼭 해드릴 생각입니다」

도안은 옆으로 돌아앉아 딴청을 피우며 모른체하는 양이었다. 풍열이 조용히 말하였다.

「어서 내려가 봐라」

길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 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렸다. 풍열은 말없이 내려다보았고 도안은 공손한 합장으로 예를 보였다. 길산은 미끗거리지 않고 얼른 달마암을 나섰다.

[illegible]生 <181>

灰色노우트 ⑬

趙善作 作 禹慶熙 畵

섬진 눈발은 어느 새 폭설(暴雪)로 변해 있었다. 차도에는 자동차들이 기회메웠고, 보도의 행인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리닫고 저리 뛰었다. 발자국으로 다져진 눈 위에 새로운 눈이 쌓이고, 빌딩들 사이의 공간을 꽉 메우고 퍼붓는 폭설은 좀처럼 그칠 것 같지도 않았다. 자동차들은 길을 메우고 선 채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은 전쟁과도 흡사했다. 노도없이 적군(敵軍)이 진주해 들어온 아비규환의 도시. 처음에는 그 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우성을 치던 시민들이 하나씩 둘씩 적과 공존(共存)하는 길이 없나 살펴 타협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았다.

J씨는 나를 데리고 택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말했다.

「할수 없는 걸, 박가와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그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신세를 지는 수밖에」

「그 친구들이라뇨?」

나는 J씨가 그와 영화감독 유창훈씨를 두고 하는말임을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여관에 진을치고있는 네 선생말요」

「어머, 싫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부정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솜씨좋게 그의 숙소에 처들어 가서 그가 미스 오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당황해 할까.

곤경에 빠진 J씨에게 내가 다시 말했다.

「저기가 어딘데요?」

「충무로 남창이죠. 가겠어?」

J씨는 반갑하는 기대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가 충무로의 남창에 [illegible] 어물고있다는 정보를 얻어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느낌이었다. 아까부터 나는 그것이 이만저만 궁금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연스럽게 물어볼수있는 기회를 얻어내지 못한것뿐이었다.

[illegible] 이 문제죠」

「시간은 충분해요. 걸어서도 갈수 있어요. 선생님은」

「나요? 나야말로 얻어지면 배꼽 달릴 엔걸」

「어디신데요?」

「집앞에선, 그럼 걸읍시다」

J씨가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펄펄 뒤따르며 내가 물었다.

「대한극장 앞, 지금 몇시지? 열시반?」

「거기가 어딘데요?」

「그쪽예요」

「미스안 괜찮다면 내 아파트에 들러 따뜻하게 홍차라도 한 잔 들고 마셔도 좋고… 실은 아까부터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갈수 없으면 미스안이내 아파트로 가도 좋다고…」

「부인한테 혼나실려구」

「그렇다면야 [illegible] 하게 내 아파트로 가자고 졸랐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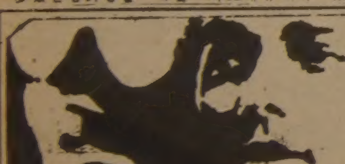
J씨는 말 끝에 쓸쓸한 여운을 남겼다.

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나는 직감했다. 병이거나, 가출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이거나…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유고(有故)한 그의 부인에 관해서 자꾸 캐묻는 것은 그에 관한 깊은 관심의 표현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내게는 그가 말하는대로 그를 액면대로 [illegible] 이 없는 것이다.

[illegible] 을 가르쳐러 저동을 통과하는 자동차와 명보극장 앞, 충무로 앞을 지나 그의 아파트까지, J씨와 나는 거의 한 시간을 걸어서 걸었다. [illegible]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도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배수.
☎ : 368-9018 , 255-0713



고포특별우대…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 Yonge / King St

재캐나다 한인학회회원 가입서
(THE KOREAN-CANADIAN LEARNED SOCIETY)

본회목적 : 재 캐나다 한인의 사회적, 경제적및 문화적 문제해결 방법, 회원 상호간의 친목, 학술및 연구자료, 직업들에 대한 정보교환, 캐나다 한국 상호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환에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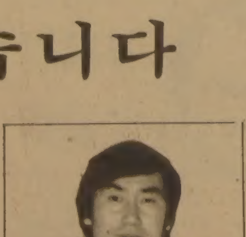
회원자격 : 대학원졸업(세계 각나라의 대학교), 혹은 동등 체험

본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을 도와주는 의미로 귀하가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회원 가입서와 수표를 함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집) ________________(직장)
학 위 :
전문분야 :
회 비(1981-1982) : 학생회원 $ 10.00
개인회원 $ 30.00
단체회원 $ 100.00

본회주소 : THE KOREAN-CANADIAN LEARNED SOCIETY
C/O DR. J. H. CHUNG, DEPT OF ECONOMICS,
UQAM, C. P. 8888, MONTREAL, P. Q. H3C 3P8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토론토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토론토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콧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花郞, 불가리아와 爭覇

자카르타市창립 국제축구 黃石根 決勝골 印尼꺾고 1-0

【자카르타=MBC·TV중계】 한국花郞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0회 자카르타市창립기념 국제축구대회준결승전에서 홈팀 우타마(대표1진)를 1-0으로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花郞은 멕시코를 1-0으로 물리쳐 결승에오른 불가리아와 21일하오9시반(한국시간) 패권을 다투게됐다. 花郞은 전반9분 趙廣來의 프리킥을 黃石根이 통쾌하게 머리로 받아넣어 결승골을 뽑아냈다.

◇준결승전적

한국 1(1-0 0-0)0 인도네시아 우타마

고메스·산체스 타이틀놓고 대결

【라스베이가스20日聯合=聯】 WBC(세계권투평의회)슈퍼밴텀급챔피언인 푸에르토리코의 윌프레도·고메스(24)와 WBC페더급챔피언인 멕시코의 살바도르·산체스간의 WBC페더급 타이틀매치가 21일 전세계권투팬의 주목속에 라스베이가스의 시저스·팰리스호텔 특설링에서 벌어진다. 32승1무 32KO의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있는 슈퍼타인 고메스와 39승1무1패29KO승의 전적으로 역대 페더급 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산체스와의 대결은 또하나의 세기의 대결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호세·술레이만 WBC회장은 이번 대전이 프로복싱의 모든 것을 보여줄것이라고는 평했는데 체중증가로 한체급을 올린 고메스는 만약 이번 대전에서 패배하면 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女子팀 5連勝

太平洋J배구 멕시코도꺾어…決勝진출확실

【힐로(하와이)=聯合】 한국주니어 여자배구팀은 21일 상오(한국시간)이곳 종합체육관에서 속행된 제8회太平洋연안청소년배구대회 예선5차전에서 멕시코를 3-0으로 완파, 파죽의 5연승을 기록하여 결승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다. 전승가도를 달리고있는 한국은 첫세트초반에 멕시코의 블로킹에 고전, 3-7까지 리드를 당했으나 朴美姬의 레프트공격과 金貞順의 중앙속공, 李恩敬의 블로킹이 호조를 보여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15-7로 승리했다. 제2세트에 접어들어 한국은 초반부터 짜임새있는 팀웍으로 몰아붙여 범실이 잦은 멕시코를 10-0으로 앞선 다음 李恩敬·金貞順콤비의 공격이 계속 불을 뿜어 단1점만 내준채 손쉽게 이겼다. 최종3세트에 들어서도 한국은 주공李恩敬을 쉬게하고 諸淑子를 내보내는 여유를 보인끝에 15-6으로 낙승했다.

◇5차전 전적

한국 3(15-6 15-1 15-7)0 멕시코

(5승) (3승1패)

在日同胞 金義明 투타활약 報德學園이 우승

日甲子園대회

【東京=成仁淑기자】 제63회 日本고교야구대회(甲子園대회) 패권은 재일동포선수 金義明이 투타에서 수훈을 세운 報德學園이 차지했다. 報德學園은 21일 낮12시반 大阪고오시엔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京都商高를 2-0으로 완파하고 첫 영광을 안았다. 호도꾸는 京都商의 커브에 무득점으로 끌려가다가 7회말선두 4번 金義明이 안타를 때리고 1死후 6번 吉道明(일본명 岡部)이 히트앤드런에 맞추어 안타를 날려 1, 3루가 됐고 7번 가시와야마가 포볼을 골라 만루를 만들자 8번 노자끼(野崎)가 스퀴즈번트를 댄게 안타가 돼 金義明이 홈인, 선제1점을 올렸다.

馬山商高 단체전優勝

全國장사씨름大會 富平高꺾어…大學部개인선 趙泰弘패권

제11회 회장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 2일째경기가 仁川실내체육관에서 속행, 고등부단체전에서 馬山商高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3회출전제한에 걸려 참가하지 않은가운데 馬山商·富平高등 6개팀이 출전, 치열한접전을 벌인 결승에서 馬山商高는 전년도 준우승팀 大邱의 永信高를 맞아 4-3으로 꺾고 올라온 富平高에 4-3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학부 개인전에는 釜山東亞大의 趙泰弘이 우승했으며 嶺南大의 金起兌와 金旭培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제2일전적

▲남고부결승 마산상 4-3 부평고 ▲동준결승 마산상 4-3 영신고 부평고 4-3 광주농고 ▲동준준결승 광주농고 6-1 혜광고 부평고 4-3 한영고 ▲대학부 개인전 순위=①趙泰弘(동아대) ②金起兌(영남대) ③金旭培(영남대)

난타전 清州가 在日同胞 꺾어

1회부터 安打5개 쏟아져

朴海龍(清州)滿壘서 결승타

在日同胞, 7회逆轉찬스 併殺로 잃어

鳳凰大旗 고교野球

清州高와 全州高가 봉황대기8강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清州高는 21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5일째 3회전 경기서 세차례나 併殺당하는 불운을 딛고 5회초 1년생 朴海龍의 결승타를 비롯한 집중4안타와 野選으로 3득점, 예상을 뒤엎고 강타력의 在日同胞를 6-4로 제압했다. 清州高는 23개의 안타가 터진 이타격전서 金鎭圭·張定淳의 적절한 계투로 안타수 13-10의 우세를 보였다. 全州高는 釜山高와 팽팽한 투수전을 벌이다 5회초 1사만루에 터진 4번 金泰明의 주자일소 우중월 3루타와 밀어내기 2점으로 대세를 결정, 8-0,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장쾌한 3루타의스윙

金泰明의 장쾌한 3루타。全州高—釜山高대전 5회초 1死만루찬스에서 全州高 4번 金泰明이 통렬한우월3루타를 때리고있다。全州는 5회서 대거5점을 뽑아 승세를 굳혔다。

清州高-在日

화약고를 껴안은 양팀의 대결은 예상대로 치열한 타격전이었다. 1회초 첫공격에 나선 清州의 선두李重和가 우중월 2루타로 난타전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清州는 보내기 번트실패로 李가 3루에서 아웃당했으나 在日선발 宋昌浩의 폭투와 2사후 4번李相明의 우전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在日역시 1회말 보복하듯 선두 沈相殷, 2번 葛鍾伸, 4번 尹將司의 연속3안타와 포볼로 2득점, 2-1로 역전리드. 핀치에 몰린 清州는 체인지·오브·페이스에 능한 張定淳으로 위기를 막고 3회초 5번韓章煥의 우월2루타와 8번朴海龍의 우전적시타로 다시 3-2로 전세를 뒤엎었다.

◇8강 전력 비교표

팀	釜商	光商	清州	慶北	大邱	善隣	全州	北一
게임수	2	3	3	2	3	3	3	2
득점	7	13	13	14	29	15	22	16
실점	4	8	7	1	8	2	7	3
타수	77	101	97	59	78	88	86	66
안타	19	30	21	22	31	28	23	22
타율	·246	·297	·216	·372	·397	·318	·267	·333
타점	4	13	11	12	22	13	15	14
도루	4	7	11	1	7	2	1	2
병살	2	2	5	3	1	1	3	2
실책	3	6	5	2	3	5	3	2
방어율	1·20	1·00	1·92	0	3·13	0·72	1·80	1·12

全州高-釜山高

全州의 우완 金大鉉, 釜山의 좌완 金宗奭의 역투로 팽팽하던 양팀의 균형은 5회초 全州 4번 金泰明의 3루타 한방으로 깨졌다. 1회초 1안타 2포볼로 얻은 1사만루의 찬스를 스퀴즈실패로 놓쳤던 全州는 5회초 釜山 金宗奭의 난조로 또다시 찬스를 맞았다. 선두 8번李相求가 중전안타를 때리고 보내기번트로 2進, 1사후 1번 白宰字가 또다시 중전안타를 날려 1, 3루의 찬스를 만들자 金宗奭의 피칭이 흔들리기 시작, 2번高銀相에게 포볼을 허용, 만루가 되었다. 타석에 들어선 3번金滿后는 조심조심 金宗奭의 날카로운 슈트와 아슬아슬한 커브를 피해 포볼을 골라내 밀어내기 선제1점을 기록했다. 釜山의 朱性鶴감독이 황급히 뛰어나와 金宗奭을 1루로, 포수 金成炫을 마운드에 올렸으나 4번 金泰明은 주자를 일소하는 우중월3루타로 3점을 추가 대세를 결정지었다. 全州는 5회말에 8번 李相求의 적시타와 폭투등으로 1점을 추가하고 6회초에 다시 6번 朴憲珩의 2타점 적시타등 3안타, 1포볼로 3점을 더해 8-0으로 대승했다.

全州, 8強에 막차合流

5회 5득점, 釜山에 콜드게임勝 8-0

선수촌서 한달强訓 아마복싱 代表14명

제2회월드컵아마복싱대회(11월9~19일·캐나다)에 대비한 국가대표선수단 14명(임원3, 선수11)은 20일 泰陵선수촌에 입촌, 1개월간의 강화훈련에 들어갔다.

◇대표선수단명단

▲코치=宋榮洙 蔡用錫 ▲선수=許永模 張任錫 朴極哲 李鉉柱 金東漢 梁睦錫 崔守鎭 李南儀 金裕賢 金南熙

人物

清州高 2루수 朴海龍

2打點올려 승리 수훈

◇朴海龍(清州高)은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리는 수훈을 세웠다. 2안타가 모두 라이트 앞으로 밀어때리는 저스트·미팅으로 상당한 정확성을 갖고있다. 특히 아웃·코스 높은 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있는 朴은 몸이 약해 풀스윙을 못하는게 흠이다. 金泰萬감독은 「체력만 더붙는다면 좋은 타자가 될것으로보인다. 머리가 좋고 호흡을 알고 경기를 한다」고 朴을 평가했다. 清州 石橋국교 6학년때 야구를 시작, 1년간 투수를 맡았지만 清州中에 입학한후 지금까지계속 2루를 보고있다. 1m70, 58kg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대표선수가 되는것이 꿈. 東亞日報 清州 지국장 朴清吉씨(46)의 4형제중 장남.

봉황대기고교야구 오늘의 경기 (21일)

▲3회전

										계
清州高	1	0	2	0	3	0	0	0	0	6
在日同胞	2	0	0	0	2	0	0	0	0	4

▲청주투수=金鎭圭(1, 5회) 張定淳(1회) 포수=南敎祐 ▲재일투수=宋昌浩 梁勝彦(3회) 포수=韓俊幸

								계
全州高	0	0	0	0	5	3	0	8
釜山高	0	0	0	0	0	0	0	0

<7회콜드게임>

▲전주투수=金大鉉 포수=咸周鉉 ▲부산투수=尹斗寬 金宗奭(1, 6회) 金成炫(5회) 田龍雨(5회) 포수=金成炫

金會長등 6名파견 西獨IOC 총회에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22일부터 10월3일까지 西獨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제84차 IOC(국제올림픽委)총회에 曺相鎬회장등 6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88년도하계올림픽개최지를 결정하는데, 한국의 서울과 日本의 나고야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있다. 한국의 올림픽유치와 관련, 金澤壽 IOC위원, 체육회대표단과 서울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총회에 파견된다.

◇체육회대표단=曺相鎬회장, 金鍾振부회장, 崔萬立명예총무, 金豫植전무위원, 金聖集국제국장, 吳志哲국제과장

野球대표팀 귀국

월드·게임과 대륙간컵대회에 참가했던 야구대표팀이 21일 상오 귀국했다. 한편 대학선발 야구팀은 친선경기를 위해 이날 하오 金浦를 출발, 日本으로 떠났으며 日本의 關西실업선발팀은 친선경기를 위해 이날 하오 來韓, 21일부터 서울과 지방에서 국내 실업팀들과 7차전을 갖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千年秘色 수수께끼 풀린다

完形青磁窯발굴…무엇을 뜻하나

◇出土된 陶窯址 발굴요원들이 가마지붕을 들어낸후 가마안을 實測하고있다。

전남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完形의 高麗青磁陶窯는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의 오랜숙제인 千年秘色의 신비를 풀어줄것으로 기대돼 학계를 흥분시키고있다. 青磁는 원래 중국 唐·殷·周시대때부터 시작돼 宋때 부터 발달됐다가 고려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고려는 이 青磁문화를 수입하면서 처음에는 신라토기를 계승했었으나 곧 중국도자기를 모방했으며 차츰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했다. 고려청자의 변천사는 純青磁시대(서기 1050~1150)·象嵌시대(1150~1250)·쇠퇴기(1250~1350)로 구분되는데 이번 康津陶窯는 고려초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형태·匣의 土質규명

釉藥두껍고 發色깊어 高麗초기것 추정

石板역할 粘土출처 해결課題

현지를 다녀온 도예가 崔健씨(60·한국요업학회 공예분과위원장)는 이번 康津의 窯가 고려시대초기로 추측되는것은 초기시대때 청자의 특징인 釉藥이 두껍고 고르게 발라져 發色이 깊고 순수한 深淵빛깔을 띠는 파편이 많은반면 무늬를 陰刻하고 그 부분을 白土나 黑土로 메운 象嵌青磁가 다음 살짝구웠다가 바르고 본격적으로 구워낸 象嵌청자의 파편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점에 주목했다. 崔씨는 完形의 窯址가 발굴됨으로써 고려청자의 가장 큰 신비인 秘色에 대한 의문이 이번에 발굴된 青磁窯의 특징으로 해결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즉 ①바닥이 들어가는 불통에 石板이 깔려있었다는점 ②磁器를 넣어서 굽는 容器인 匣의 土質이 밝혀졌고 이 匣으로 지붕을 씌웠다는 점 ③가마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崔씨는 우선 불통의 石板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가마는 火口에 로스를 설치 위에서 나무가 타면 그 사이로 재가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石板일 경우 재가 밑으로 떨어지지않으며 熱이 섭씨 1천2백도 이상 오르면 돌은 갈라지거나 튀게되어 못쓰게 된다는 것. 따라서 此際에 石板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풀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匣의 土質은 粘土인데 우리나라 해안에서 나오는 粘土의 염분함유량은 2천2백PPM으로서 수명이 짧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요즘엔 염분이 거의 없는 粘土를 쓰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粘土를 주로 이용하는데 고려 5백년간 康津일대의 窯址에서 쓴 粘土는 어디에서 가져왔는가하는 문제다. 崔씨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青磁의 신비는 풀릴것으로 낙관하고있다.

崔씨에 의하면 예나 이제나 불을 가마에 지피는 원리는 변함이 없다. 용기(窯)는 酸火焰이라해서 섭씨 9백50도때 시작해서 섭씨 9백50도 정도에서 구워지며 器類(고려청자·조선백자)는 還元焰이라해서 섭씨 1천3백50도에서 구워진다. 고려자기는 섭씨 1천2백50~1천2백70도가 적당한온도로 대체로 이때 흙(胎土)에서 철분이 우러나오면서 위에바른 釉藥(잿물)에 침투, 青磁色을 띤다. 崔씨는 고려청자의 이같은 제조방법과 釉藥의 秘法은 의외로 밝혀졌지만 제대로 재현시키지 못하는것은 도가마자체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가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丁華기자]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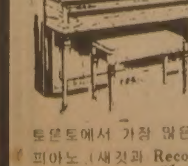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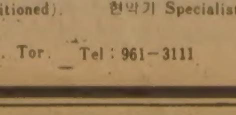
정통의 중국음식 뱅킷 파트에 맞아서 원하는 대로 베이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4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혈, 김 선 남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원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 있음)
★평일 오후3시및 무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 7PM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研修보다「見聞에 有益」"

海外다녀온 大學生들 異口同聲

團體여행…會話할 기회없어 / 研修·시찰區分 實利얻어야

『대학생 단기 해외 연수제도는 그 운영면에서 개선할점이 많다』 숱한 구설수 속에서 방학과 함께 미국、영국으로「연수」여행을 떠났던 대학생들이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소감이다. 이들 대학생들은 단기 해외 연수가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 시키는데는 큰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다고 솔직이 인정한다. 차라리 여행에서 얻은「견문넓히기」가 훨씬 유익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룹이 效果的… 教授는 통역보다 인솔만"

단체로 외국대학의 연수원에 가는것보다 개인혹은7~8명씩 그룹별로 떠나 외국인과 직접 부닥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번에 60~1백20명씩 몰려 다녀서는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도 거의없고 남보기에도 어색한것같았다고 말한다.

해외연수에 인솔교수가 동행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인솔교수가 사사건건「통역관」역할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불평도했다. 그래서는 연수생들이 스스로 부딪치고 문제를 해결할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인솔교수중에는 연수과정과 시찰여행을 구분、돈만 있으면 다녀올수있다는 풍조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도있다. 결론적으로 얻는 것이 적지않은것은 사실인것같으나 2、3백만원의 막대한 경비를생각하면 미비점을 빨리보완해주어야 할것같다.

방학동안 해외연수에 참가했던대학생수는 2천명내외. 이들은 거의 영어회화를 익히기위해 미국、영국등지로몰려갔었다. 그러나 연수를 끝내고 돌아온 학생이나 이들을 인솔했던 교수들은 한결같이 3~4주간의 연수로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일수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번여행이「연수」보다는「여행」으로서의 성과에 더큰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욕의 와그너大에서 영어회화교육을받고 돌아온 金모군 (S대2년) 은『3~4주의 영어회화교육으로는 인삿말정도밖에 입이 열리지않는다. 회화교육만 생각한다면 돈이 아깝다. 그러나 해외견문을 넓힌 것이 큰 보람』이라고말했고 영국 런던근처의 버마우스 연수원에서 회화교육을받은 李모군(C대2년)도『연수원에서 보다는 민박하면서 배운회화가 더생생하다。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C대학생 10명을 인솔하고 다녀온 한여교수는『학생들이 외국인을 두려워하지않고 말을 건넬수 있게된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말했다.

J대학생 60명을 인솔하고 웨스트 미시건대학에서 3주간 연수를 지도하고 돌아온 鄭모교수는『영어회화를 익히기 위한 단기 해외연수는 재검토할 필요가있다. 2백만원정도를 들여서 3、4주간 영어회화를 익히는 것은 사실상낭비』라고 회의를 표시했다. 鄭교수의 말로는 그만한 돈이면 서울에서 외국인을 초빙해 1년간 상당한 회화실력을 쌓을수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단체연수 회화교육보다는 개인혹은 몇명이 어울려 외국대학의 연수허가를 얻어 최소한의 경비만 들고나간다면 외국땅에 떨어진후부터 어차피 자신의 영어실력을 총동원해 부딪쳐야하고 그과정에서 견문도 넓힐수있고 회화도 익힐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여행을하고 돌아온 高모양 (S여대1)은『아버지가 같이따라가 도와주긴했으나 음식주문하는일、모텔예약하는 것을 하다보니 외국인을대하는데자신이생겼다』고경험담을 털어놓았다. 高양은 여행중 미국의 버펄로에서 3일간 햄버거하우스에 취직했는데 음식주문하는 말에 귀가트였다고 말한다.

연수여행기간이 너무짧다는것은 공통적인 불만이었으나 연수3분의2、여행3분의1로 못박고있는 현재의연수프로그램도 여행기간을 좀더 늘려 절반씩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차피 어학연수의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여행을 좀더많이 시키는게 훨씬 낫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들 연수학생가운데는 귀국하면서 과다한 외제물건을 갖고오다 과세가돼말썽이 생기고있지만、이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이들이 조국을보는 태도에 더 문제가 있는것같다. 입국장에서 법무부사열을 받으면서 담배를 버젓이물고『왜이리 수속이 늦나』는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세관검사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은 공항직원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했다.

귀국하는 비행기속에 한국인학생과 일본인학생이 섞여있었는데『한국학생들이 줄담배를 피우는동안 일본학생들은 열심히 기행문을 쓰고있어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한여학생의 말은 연수학생들이나 앞으로갈학생들이 깊이 짚어볼만한 충고인것같다. 【金善宗기자】

◇과연投資만큼거두었나 기대와 염려속에서 해외단기연수를 떠났던 대학생들이金浦공항을통해 속속귀국하고있다。귀국보따리가 무거워보이는 이들대학생들은 해외에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온 것일까。

擬似뇌염 北上…漣川에도

전국16명 濟州·高興등에 새患者발생

【光州·濟州·漣川=聯】의사뇌염증세환자가 6명 더발생했다.

21일 집계된 새로운환자발생지역은 경기도漣川과 濟州두곳및 高興·靈岩·靈光등 전남지역의 세곳이다.

새환자는 전남高興郡 南陽面 月亭里에사는 洪貴禮양(7)이 20일낮 뇌염증세로 全南大병원에 입원했고 이날하오 金順英양 (11·전남靈岩郡靈岩面新月里) 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앞서 지난19일밤 이병원에 金英愛양 (7·靈光郡法聖面新庄里) 이 같은증세로 입원 치료중이다.

또 경기도漣川郡漣川邑通峴里 李元龍씨(54)의3녀 松熙양 (9·연천국교2년) 이 의사뇌염증세를 보여 서울高麗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또한 濟州에서도 20일 첫 의사뇌염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두번째로 오창흥씨 (44·南濟州郡大靜邑武陵里287의3) 의 3녀 회숙양 (4)이 고열과 두통등 뇌염증세를 보여 西歸浦시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계속 혼수상태이다.

이로써 전국에서는 올들어 모두 11명의 의사뇌염증세환자가 발생한것으로 집계됐다.

각병원들은 환자들의 혈청을 채취、서울국립보건연구원에보내 진성뇌염여부를 가려줄것을 의뢰했다.

全北大의대 부속병원에는 21일 이영욱군 (15·金堤郡進鳳面古沙里) 이 심한 고열과 두통증세로 입원한것을 비롯、모두 5명이 뇌염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지난19일 같은 증세로 입원한 김정현군 (8·충남舒川郡西面新合里) 은 혼수상태에 빠져 중태다.

法廷탈주주범 李相勳 징역 7년·監護 7년

宣告공판열려

법정탈주범 李相勳피고인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상오10시 서울지법南部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朴俊庸부장판사는 이들피고인들에게 최저 징역3년 보호감호7년에서 최고 징역7년 보호감호10년을 각각 선고했다.

朴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이들의 범죄는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악질적인 것이나 자수한 정상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 위증죄로 구속기소됐던 尹錫子피고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은 30여명의 가족과 보도진이 방청하는가운데 개정10분만에 끝났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구형량)

▲李相勳=징역7년、보호감호7년 (징역12년보호감호7년) ▲馬洸植=〃7、〃10 (〃10、〃10) ▲李亨燕=〃5、〃7 (〃10、〃7) ▲盧隆相=〃3、〃7 (〃3、〃7)

한국일보 詩壇

續·당신

卞鍾植.

당신 생각으로 내 마음은 언제나 가득
차 있읍니다
당신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내 가슴은 자꾸만 당신 곁으로 다가가
고 있었읍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던질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 눈웃음치는 짧은 순간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당신의 마음의 향
기가 나의 온 몸에 번져 흐릅니다.

輪禍많으면 減車·免許취소

개인택시 全體50%線 增車

交通部、安全대책마련 단계적조처 / 全國6百여 4種건널목에 警報器

교통사고를 많이내는 운수업체는 앞으로 감차처분과함께 사업면허가취소되는등 강력한 행정제재를받게되며 반면 사고율이적은 개인택시는 전체택시의 절반정도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경부·호남·전라·중앙선의 중요간선을 비롯한 각선의 허술한 4종 건널목 6백20개소가 모두 자동경보기가 있는 3종이상 건널목으로 승격된다.

교통부는 21일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발표、사고다발업체에 대한 제재는 버스와 택시로 사고지수 (보유댓수분의 사고건수×10) 에따라 구분、1단계는 경고와함께 1년간 증차나 노선증설을 해주지않고 보유댓수의 5분의 1을 10일간 운행정지시키고 2단계로는 수익성이 가장큰 운행계통의 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며、2차처분업체가 다음해에 또 2차사고지수 (시내버스15·택시9) 에 달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키로했다.

또 업체의 사고빈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고건수가 계산되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교통부가 매년 평균15·6%씩증가하는교통사고발생률을 10%미만으로 낮추기위해 철도·공로·해운·항공등각부문별로 마련한 이대책은운전사의 예비정원을 충원、시내 버스의경우 대당 현재 1·8 인에서 2·3인으로、고속·시외버스는 현재 1·3또는 1·4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운전사의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기록카드관리제도를 도입、업종별로 경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철도부문에서는 기관사의 사기앙양을위해 기관사 수당을 현재 3만3천원에서 10만원수준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오는 87년까지 1천5백65억원을들여 전국의 주요건널목 1백22개소를 입체화하고 오는 85년까지 1백7억원을투입、호남선의 大田~松汀里간 1백90㎞를 자동폐색신호 (ABS) 로、1천2백86억원을 투입、경부·태백·중앙선등 6백50㎞구간을 열차 집중제어 (CTC) 식으로 각각 개량키로되어있다.

해운부문대책으로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을 오는9월부터현재 종신(終身)제에서 5년마다 경신키로하고 여객선의 승무원자격을 상향조정、지금까지 1천톤에서 5천톤미만의 선박운항을 을종선장이 하던것을 갑종선장으로 바꾸기로했다.

또 항공부문에서는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고 대형격납고와 엔진정비공장및 전자보기 (補機) 공장을 건설、항공기정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80년 교통사고는 12만5백60건이 발생、11만8천8백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전체교통사고의 99·7%는 육상부문이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要件미비 專門大인가싸고 受賂 前文教部과장(現全南도교위副教育監職代) 拘束

뇌물준 大田忠田학원理事長도

대검 중앙수사부 2과 (成[illegible]부장) 는 21일 요건을제대로 갖추지않는 전문대학을 설립인가해주고 4백20만원의 뇌물을받은 전문교부산업교육국 전문대학행정과장 具丙林씨 (48·현전남도교위부교육감직무대리)를 뇌물수수혐의로、具씨에게 뇌물을준 학교법인 忠田학원 (충남大田市梧柳洞15의17) 재단이사장 李福姬씨 (40) 를 뇌물공여및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등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李씨로부터 90만원의 뇌물을 받은 문교부 전문대학 행정과 행정사무관 南容鉉씨 (39)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비위사실을 문교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具씨는 문교부산업교육국 전문대학 행정과장으로 있을때인 지난 1월 평소 잘알고있던 忠田학원재단이사장 李씨로부터 忠田학원산하 聖賞전문대학의 인가를 해준데대한 사례비명목으로 1백만원을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4백20만원을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具씨는 聖賞전문대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수익재산등 소정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설립인가를 받을수없는데도 대통양행의 주식50만주 (50억원 상당) 를 소유한것처럼꾸민허위예치내역서를제출하자이를알고도묵인、인가해주었다는것이다.

李씨는전문대학설립을둘러싸고 具씨등에게뇌물을준 외에도 올신입생 9백10명 (정원외34명포함) 으로 부터 받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학도호국단비등 모두 3억1천4백여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빼돌린것을비롯 지금까지 모두 7천8백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李씨는 이밖에 올입학금 3억1천4백여만원등 1억2천1백만원을 인출하여 남편金在星씨 (42)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키는등 3억여원을 모두 金씨 구좌로 돌려사립학교법 (교비회계위반)을위반한혐의를받고있다.

現代版「샤일록」

大邱지검 악덕高利업자등 令狀

3천만원 利子3천5백만원

매달 複利계산…배보다 배꼽커

【大邱=聯】大邱지검 형사3부 金鍾九검사는 20일 1천만원을 7일간 빌려주고 이자로 5백만원을 받은 고리대금업자인 大邱부동산사장 李貫衡씨 (42·大邱市中區三德洞43) 를 사기및 부당이득혐의로、李씨로부터 돈을빌린 아진주택회사대표 李尙夏씨 (28·[illegible]) 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및 동행사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大邱에서 20억대의 재산을가진 고리대금업자 李씨는 지난해 7월18일 아진주택에 현금6천만원을 빌려주고 [illegible] 지난해 7월31일 大邱市南區大明洞에있는 아[illegible] 남인 19일 하루이자 1백만원과 함께 원리금을 돌려받았으며 지난해 8월13일에는 李씨에게 1천만원을빌려주었다가 일주일후인 19일 이자 5백만원을 받는등 한달동안에 12차례에걸쳐 현금 3천만원을빌려주고 복리이자등을가산[illegible] 진상가아파트 19가구 본시가 2억3천만원) 을 근저당설정해주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빌려주기로하고 근저당을 설정받은후 돈도 [illegible] 아파트를 임의로 법원에경매처분신청을 한혐의도 받고있다.

아진주택대표 李씨는 지난해 11월23일 李씨에게 1천만원을 빌면서 壽城區晩村洞991의59 대지60평 건평22평의 단독주택을담보물로 가등기해준후 돈도 갚지않고 등기신청서와 가등기해약증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서 가등기를 말소한혐의다.

中共軍시체·遺品 北傀에

軍事停戰委 464차 비서장會議

【板門店=權周勳기자】 군사정전위원회 제464차 비서장회의가 21일상오11시 판문점에서 열려 유엔군측은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한국동란때 숨진것으로보이는 중공군 시체1구와 부품들을북괴측에 넘겨줬다.〈사진〉

이날 회의는 유엔군측비서장 패트릭·H·브레디 대령과 북괴측비서장 김연기대령이 대좌、시체의인도절차만을 이야기하고25분만에끝났다.

이날 시체와함께 인도된중공군병사의 유품은 부러진 벨트、중공제 도장과 도장집 가락1개、버클이 달린 가죽등이었는데 유엔군측은 앞서 지난7일에도 중공군 시체1구를 인도해준바 있다.

柳전북교육감 辭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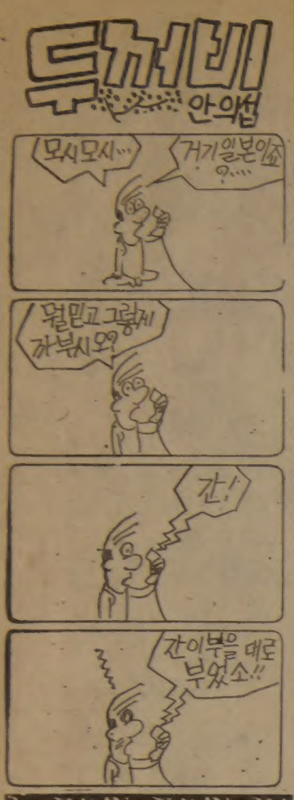
【全州=聯】柳在榮 전북교육감(62)이 20일 문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柳교육감은 후진에게 길을 열어 주기위해 물러날 결심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梁山앞바다 배출돌 1명 失踪

【釜山=聯】 21일 하오 2시15분께 경남梁山郡西生面 간절갑등대앞 8마일해상에서 범양전용선 (부산中區中央洞4街89)소속 화물선오션에이스호 (1만4천3백9톤·선장 하시안·42)와 파나마선적 실리트호 (6천7백톤) 가충돌、오션에이스호의 기관실이 대파돼 기관장 김동섭씨(52)가 실종되고 기관원양은수씨 (30·부산東萊區盤松2洞)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무연탄을 싣고 강원 北坪항으로가던 실리트호가 사고지점에서 오션에이스호의 좌현중간부분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신장개업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권, PETER CHAN 배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
치료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 9시~9시
일요일 : 9시~9시
차이나타운 내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JEWELERY SALES PERSON
영어에 능통하고 용모단정하며
보석판매 경험자 우대함 카나다에서
고졸이상인자에 한함
☎ : 979-3196 고 려 보 석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스토아 헬퍼 구함 :
학생(남자) 파-타임(주중. 토·일요일)
☎ : 762-1572. 769-9854 미스타 김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구 인
미시사가 LORNE PARK지역. 경험있는 가게헬퍼구함
☎ : 278-8101. 822-4179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 성실히 운영하실분을(매니저) 급히 찾읍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수를 원하실 때는 아주 저렴한 DEAL로 양도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주소 : 393 EGLINTON AVE. E.

주방헬퍼구함 : 남녀 각각1명
웨이트레스 1명구함 한국관
☎ : 536-0290

출퇴근 하시면서 4살 남아 돌봐주실분
그리고 산모를 돌봐 주실분 $500지불함) 후대함
143 WOOD WARD AVE.
WESTON, ONT. (JANE+CHURCH)
☎ : 242-2064.(R). 633-6813(B)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도낫·캣쓸 : (도나스·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398 CHURCH ST.(다운타운지역)
☎ : 977-0303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스토아 헬퍼구함 : FULL TIME
YONGE과 EGLINGTON지역
☎ : 485-4353(아침9시~정오 전화바람)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스토아 헬퍼구함 :
ALBION RD.
☎ : 745-6330

도나스 SHOP에서 일할 캐시어 구함
남자분에 한함. 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AGINCOURT)
스토아 주인이 병환으로 급히 매매코자 함.
ASKING가격 $35.000. 장소 : 매우 바쁜 프라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A. E. LEPAGE복덕방)
492-7333 KEN MARESCAUX

맥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2500달러.
1430 Dundas w. ☎ : 531-0773. Mr.김

프렌차이즈 베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권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세 탁 소 매 매
수입좋은 PICK-UP세탁소 매매 : 월세 $300. 월수입 $2000이상(단. 바느질 할줄 아는 분에게 팔고 십습니다)
1716 QUEEN ST. E. 방문요망(프라자 안)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모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급 매"
POP COOLER 1 DOOR
☎ : 663-1598 미스타 서

〈매 매〉
3년된 세탁기, 3년된 DRY MACHINE. 1년된 스토브. 1년된 냉장고. 고급 응접셋트(1년됨)를 염가에 팝니다.
☎ : 275-8016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그로서리및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천달러
RENT 450달러
263 DUNN AVE.

버라이어티및 기프트가게 급매 :
주매상 $3500~$4000
☎ : 757-1097 미스타 한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미니슈퍼마켓 매매
주매상 7천달러 이상(5일영업). 렌트 $1200.
리스5년+5년. 가격 6만달러+스탁
☎ : 368-1917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천5백달러
3261 DUNDAS W.
☎ : 769-5956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Can 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집·방세·하숙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05

세 놓습니다 : 2 BEDROOM APT. SABLET.
미시사가 있음.
☎ : 421-2276. 279-4997 미스타 박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주간女性

金海공항에 뜨거운 血肉의情
離散母子 36년만에 극적해후

【金海=聯合】 8·15해방으로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서 헤어지지 내던 모자가 36년만에 극적으로 재회,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눴다. 19일 상오 10시 金海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일본 도오꾜(東京)에 거주하는 權正씨(55)와 權씨의 어머니 金윤옥씨(77·부산 西區 槐亭2洞)가 헤어진지 꼭 36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들 모자가 헤어지게 된 것은 당시 도오꾜에 살고있던 金씨가 해방을 며칠 앞두고 남편과함께 잠깐 귀국한 사이 해방이되는 바람에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 당시 日本에 아들 2명과 딸 1명등 3명의 자녀를 친척에게 맡겨두고 귀국했던 金씨는 20년전인 지난 61년 4월 일본에 두고온 세자녀를 찾기위해 日本으로 밀항했다가 일본관헌에게 잡혀 오오무라수용소에서 2년간 감금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번에 극적으로 만나게된것은 지난 17일 관광차 고국에 온 아들 權씨가 국제관광공사 金海공항 안내사무소 (소장 朴正龍·38)에 들러 어머니金씨를 찾아달라고 부탁, 朴소장등이 수소문끝에 金씨가 생존해있는것을 확인, 양쪽집에 연락을 해줌으로써 이뤄지게된것.

映畵「피막」國內最初로
베니스영화제本選올라

世紀홍업(대표 金華植)이 제작·출품한 영화「피막」(감독 李斗鏞)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로는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 본선에 올랐다. 17일 駐伊 한국대사관이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출품작인 「피막」은 제43회 베니스영화제에선(7·25~8·10)에서 다른 21개작품과 함께 첫 관문을 통과, 오는 9월2일부터 개막되는 본선 (폭넓은 부문)에 진출했다는것.

우리나라의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馬夫」(61년 베를린영화제 특별[illegible])가 유일한 수상기록. 그러나 본상 아닌 특별상이어서 본상가를 받지 못했었다.

베니스영화제에는 61년(22회) 「成春香」이 첫출품된 후 「사랑방손님과 어머니」(62년), 「벙어리三龍」(65년)등 매년 출품했으나 예선을 통과하기는 이번「피막」이 처음이다. 「피막」은 사머니즘을 바탕에두고 인간의 원한을 그린 영화. 제17회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대그우드 범스테드씨, 해명을 해봐요!!"
"당신이 나이트클럽에서 멋진 합창단 아가씨와 춤추는꿈을 방금 꿨단 말예요!"
"나도 해명좀 들어야겠어! 당신은 그 나이트 클럽에서 뭘했지?! 대답해봐!"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賦

<16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茶花自紅 ⑭

이영(李英)은 운[illegible] 없이 사라졌지만 수수께끼는 남았다.

아울은 모사(謀士)가 사전에 탄로난 이상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설혹 포기하지 않는다해도 노수신의 일행은 다른 길로 피해갔을 것이 확실했다. 홍제남과 이문길은 그날밤 모이기로 한 하서의 집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문길이 중얼거렸다.

『글쎄』

홍제남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터였다.

『범상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네』

하는 이문길의 말이었는데 홍제남은 그사나이의 풍자이 인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비승비속으로 보이진 않았지?』

이문길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애』

하고 홍제남이 [illegible] 것은 그 사나이가 [illegible] 유학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llegible] 어딘지 모르게 위엄이 있는 얼굴이며 [illegible]

『그건 그렇고 그자가 어떻게 우리의 할 일을 미리 알아낼 수 있었을까』

이문길이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냈다. 홍제남의 말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조심이 없었던 탓이다. [illegible] 무에서나 고언방담(高言放談)하는데 그렇게 이저리로 전파된 까닭이다. 앞으로 조심해야 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로 보아 우리를 밉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이문길은 계속 불안한 모양이었다.

『혹시 그 사람이 처음부터 [illegible] 전 아니지 않는가』

하며 홍제남은 지금 그 사람이 자기들의 적은 아닐지 모르나 언제 적으로 변신할지 모를 사람이란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그런 짐작을 말해 이문길을 더욱 불안케 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었다.

하서를 비롯해서 [illegible] 무용담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동지들은 홍제남과 이문길의 얘기를 듣자 모두 약간 실망한 표정이었으나 실망한 기분은 잠깐이고 그 정체 모르는 사나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떠들썩했다.

『누굴까』

『동인 패거리는 아닐까』

『암행어사인가?』

별의 별 추측을 다해 보는 것이었으나 적확한 결론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다만 확실한것은 우리들의 거동을 지켜보고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고 권유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지금부터 우리 몰려다니지 말고 각자 행동을 따로 따로 하자. 생각하면 우리들의 행동에 경솔한데가 많았어. 자칫 역모의나 하는것처럼 몰리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화만입는 꼴이 되게 아닌가』

그러자 하서이

『권공의 얘기도 좋지만 [illegible] 그렇게 해야할거야. 하나 뭔가 뒤숭숭한 기분으로 있을순 없잖은가. 앞으로 우리의 행동을 은밀하게 하긴 하되, 아까 홍공과 이공이 사직골근처에서 만났다는 그 자의 정체부터 알아보자꾸나』

하고 손뼉을 탁쳤었다.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